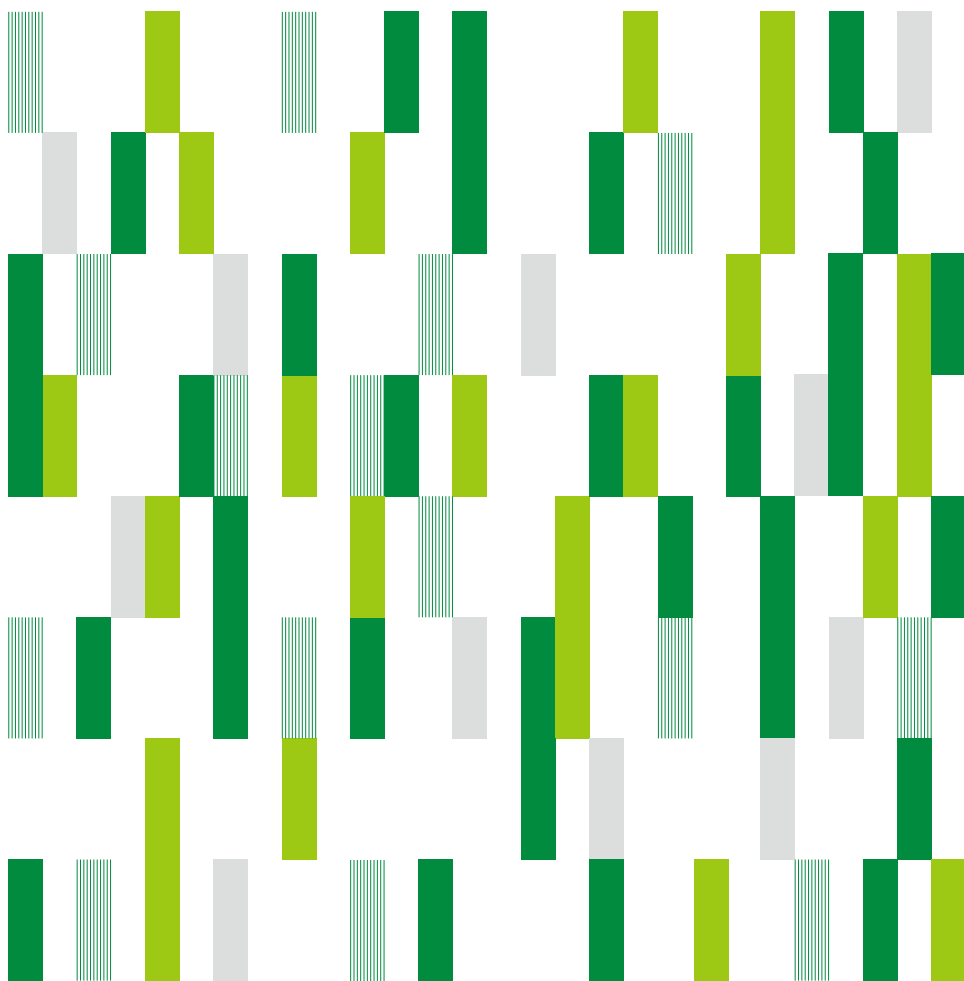


# 독서동아리를 말하다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독서동아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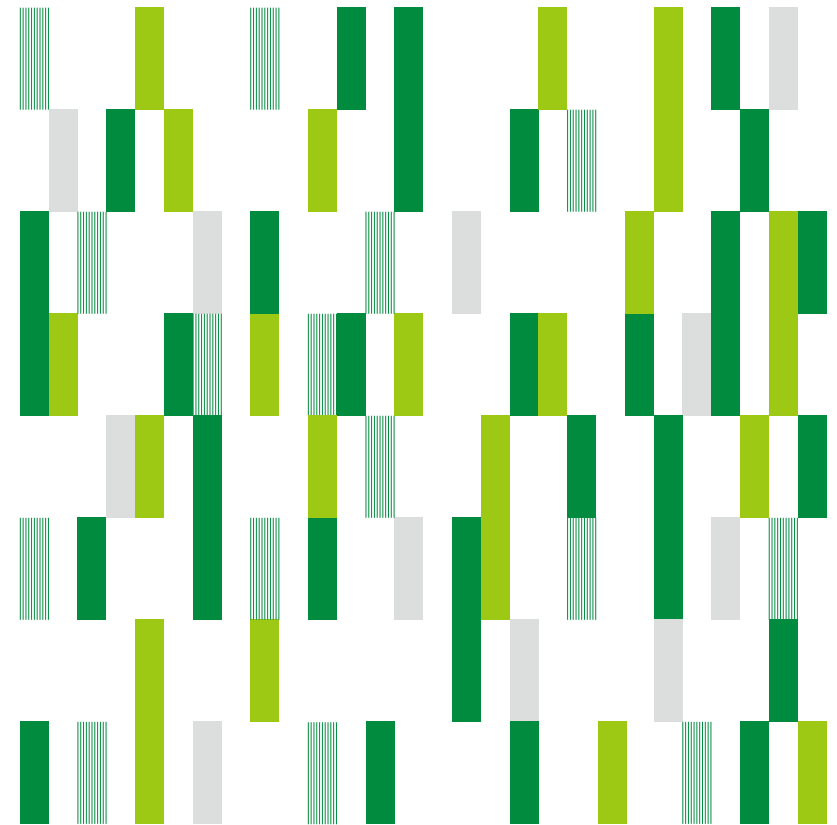
# 독서동아리를 말하다

독서동아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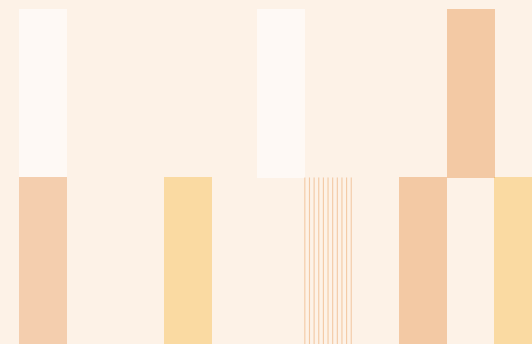
# 독서동아리를 말하다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독서동아리 인터뷰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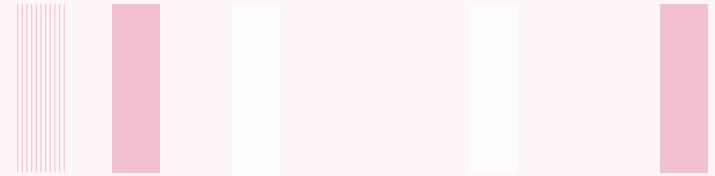
## 들어가는 글

함께 읽으며 사회를 바꾸는 전국 독서동아리를 응원하며 <small>책읽는사회문화재단</small>	08
--	----

## 1부 독서동아리를 말하다

01 경찰청 안에 도서관이 있다고? · 전북 다독임	12
02 책 너머 불어온 세월의 향기 · 서울 실버북토깅	17
03 10대들의 상상이 자라다 · 서울 검은독서단	21
04 책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인연 · 서울 고궁독서	25
05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읽어요 · 서울 동네북	30
06 다정한 온기와 따뜻한 세상 · 서울 북소리	35
07 상상력을 담아 글에서 그림으로 · 서울 뽀	40
08 함께 평화를 고민하다 · 서울 수평회	44
09 더불어 살기 위한 독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다 · 서울 연지	49
10 먹지 않고 사랑하는 법 · 서울 채식한권	54

11 직장인들의 독서생활 · 대구 아름다운 구속	60
12 그림책으로 소통하다 · 인천 얘기보따리	65
13 독서동아리 10년의 궂이를 알고 싶나요 · 대전 DIVA 독서 포럼	70
14 독서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별 · 대전 별 헤는 밤	74
15 책과 함께하는 새벽 시간 · 대전 짜릿한 탈출 새벽독토	78
16 자발적인 강제 독서 · 세종 강독	82
17 함께 낭독하며 성장의 여정을 떠나다 · 경기 낭랑공독	86
18 안산의 아침을 독서로 깨우다 · 경기 안산 독서 포럼	90
19 서로만의 공간에서 책과 커피와 함께 · 강원 서로	95
20 빨간 악을 선택한 사람들의 독서모임 · 전북 빨간악독서회	100
21 책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여정 · 경남 잉클링스	104



## 2부 독서동아리가 펼쳐다

- |                                 |           |     |
|---------------------------------|-----------|-----|
| ① 글 빛는 고을 청주, 신명 나는 독서동아리 한마당으로 | 청년취재단·강주희 | 110 |
| ② 전국의 독서동아리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 청년취재단·김규리 | 114 |
| ③ 책 익는 마을의 구수한 이야기 마당           | 청년취재단·육소연 | 119 |

## 3부 한겨레 공동기획: 우리 독서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                            |               |     |
|----------------------------|---------------|-----|
| ① 군인들 호위하는 도서관에서 행복한 책 읽기  | 책이 꽃이라면·이하나   | 126 |
| ② 누가 떠나실 때 독후감 보내라 하였나요    | 석수시니어독서클럽·박인희 | 128 |
| ③ 생각만은 지하철 궤도를 훌쩍 벗어나도 좋으리 | 다독회·이숙경       | 131 |
| ④ 책 표지를 수놓은 색깔만큼 다채로운 책이웃  | 다다다새싹·박영숙     | 134 |

## 독서동아리 권역별 워크숍

- |                     |     |
|---------------------|-----|
| 2019년 독서동아리 권역별 워크숍 | 138 |
|---------------------|-----|

## 2019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 |                         |                    |     |
|-------------------------|--------------------|-----|
| ① 왜 사회적 독서인가?           |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 148 |
| ②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 함께한 사회적 독서 | 신남희·구산동도서관마을 관장    | 157 |
| ③ 소통 공감 나눔의 독서교육 길 찾기   | 한명숙·강원도 봄내춤 수석교사   | 162 |

## 함께 읽으며 사회를 바꾸는 전국 독서동아리를 응원하며

2019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책 읽는 문화의 일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400개의 독서동아리에게 80만 원씩을 지원하여 도서 구입, 원작 관련 공연 관람, 독서기행, 문집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별도로 강연료를 지원하여 207개의 독서동아리가 저자와 만나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풀뿌리 독서동아리가 ‘함께 읽기의 힘’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니다.

아이, 어른, 학부모, 교사,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예술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카페, 도서관, 가정집 등 곳곳에서 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길잡이’가 개최한 ‘독서동아리 권역별 워크숍’에서 만나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

고 생생한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 방문한 길잡이가 모임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양한 사례를 모으기 위해 7명의 청년취재단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겨레와의 공동기획 ‘지은이와 함께 읽는 사람들’과 ‘우리 독서동아리를 소개합니다’를 통해 지은이와 독서동아리와의 만남을 도모하고 독서동아리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전했습니다.

올 한 해 각 지역의 독서 활동가로서 수많은 역할을 해낸 길잡이와 청년취재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읽기’의 위대함을 다시금 일깨워주신 전국의 수많은 독서동아리 회원분들, 고맙습니다.

독서동아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곧 개편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국 독서동아리의 소통을 도우며 계속해서 독서동아리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1부

## 독서동아리를 말하다



# 경찰청 안에 도서관이 있다고?

## 다독임

청년취재단 · 구민정



### 모이는 곳

전북경찰청 내 무궁화도서관

### 모이는 사람들

전북경찰청 직원들

### 추천도서

- 시그니처 (박영광 지음, 매드픽션 펌)
- 속죄 (이언 매큐언 지음, 문학동네 펌)
- 담론 (신영복 지음, 돌베개 펌)
- 이방인 (알베르 카뮈 지음, 민음사 펌)
- 돌베개 (장준하 지음, 돌베개 펌)

경찰청 정문에 들어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건물 외벽에 큼지막하게 붙은 참수리 마크가 오늘의 인터뷰어를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땀다. ‘다독임’을 만나러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로비에서는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했는데, 인적사항을 비롯해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도 낱낱이 적어야 했다. 과연 오늘의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입구에서 만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다독임’의 모임 장소인 경찰청 내 무궁화도서관으로 향했다.

### 직장 내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다

웅장한 건물 외부와는 달리 경찰청 1층 한쪽에 자리 잡은 무궁화도서관은 따뜻한 분위기를 가득 풍겼다. 곳곳의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책장을 빼곡하게 메운 수많은 책들이 보는 이를 미소 짓게 만든다. 누군가 기증한 책들도 여러 권 보인다. 문학, 철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비롯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전권이 웅기충기 모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갈하게 꽂혀 있는 책등을 보고 있으니 잔뜩 긴장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이곳에서 매달 ‘다독임’의 독서모임이 열린다.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독서모임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 ‘다독임’의 출발점이 되었다. 지금의 ‘다독임’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사내 게시판에 붙은 모집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했다.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렸더니 ‘마약수사대’, ‘과학수사계’ 등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접했던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현직에 있는 경찰관 분들에게서 풍겨나오는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러나 이내 회원들의 독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책을 대하는 애정 어린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는 굳어 있던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렸다. 책 앞에서는 카리스마 넘치



는 경찰관이 아닌,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책을 대하는 한 명의 독자였다.

“이전부터 책을 읽어야겠다는 의무감과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나와는 또 다른 눈으로 책 속의 세계를 경험하고, 편식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독서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모임에 참여했어요. 회원들과 책을 읽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책을 읽고 느낀 감상을 회원들과 나누며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었어요. 나와는 또 다른 시각을 만나고 싶었죠. 독서는 개인의 행위지만, 독서모임을 통해 같이 읽는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직장 내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건 뜻깊은 일이죠.”

“저는 그동안 소설 위주로 책을 읽었는데 모임을 통해 책을 고르는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몰랐던 재미를 알게 됐죠. 책을 읽는 기쁨이 배가 된 것 같아요.”

### 독서는 또 다른 독서를 낳고

회원들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 달의 토론 도서를 전 직원들에게 공지한다. 그래서 ‘다독임’이 매달 어떤 책을 읽는지 경찰청 내의 모든 직원들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회원들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매달 한 권씩 책을 읽다 보니 ‘좋은 책’을 선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회원들은 책을 고를 때 무척 신중하다. 회원들 모두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한다. 주로 읽는 책은 소설이지

만, 여러 분야의 책을 다양하게 시도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달의 책을 추천한 회원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커피 한 잔을 사게 하는 귀여운 벌칙을 주고 있다.

‘다독임’은 현직 형사이자 소설가인 『시그니처』의 저자 박영광 작가를 모시고 작가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플래카드까지 손수 제작해 환영의 마음을 적극 표현했다고. 지원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독임’ 회원들에게 박영광 작가와의 만남은 같은 조직인으로서 감회가 새롭을 수밖에 없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들은 또한 전북도청과 함께하는 독서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 독서가 일터와 삶에 미치는 영향

이 날은 임흥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를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다소 뜻밖의 책 선정이었다. 회원들에게 ‘90년생’이란 자신의 한참 어린 후배, 혹은 자녀들의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접하고 생각이 더욱 유연해졌다는 정수진 선생님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독서가 자신의 직업 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회원들은 단순히 감상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 책은 마케팅을 참 잘했어요. 대중이 원하고 공감하는 부분을 정확히 집어낸 거죠.”

“맞아요. 어쩌면 세대가 변한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한 것일 수도 있죠.”

책에서 언급되는 신조어를 하나씩 되짚어보며 ‘인싸’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병맛’ 참치 광고를 보면서 서로의

감상평을 나누기도 했다. 이처럼 회원들은 자신과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처럼 세대 간의 다름을 짚어보고, 그것을 그저 나와는 ‘다름’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간격을 좁혀가며 이해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건 제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였어요. 같은 책을 읽고도 이토록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지켜보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 함께 이루어나가는 꿈

“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꾸준히 장기적으로요.”

회원들은 저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각자의 목표는 곧 동아리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회원들에게 이곳 ‘다독임’은 서로의 목표와 꿈을 함께 다독이는 따뜻한 공동체이기도 하니까.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추천도서를 열 권 정도 추려 달라는 인터뷰어의 부탁에 ‘버릴 자식이 하나도 없다’며 곤란해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먼 훗날 나의 모습도 이들과 닮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함께 책을 읽으며 매일매일 특별함을 경험하는 이들 ‘다독임’처럼.

## 02

# 책 너머 불어온 세월의 향기 실버북토킹

청년취재단 · 강주희



모이는 곳

서울 금천구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모이는 사람들

책을 사랑하는 중장년층

추천도서

- 스톨너 (존 윌리엄스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제니스 캐플런 지음, 위너스북 펴냄)
- 백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지음, 덴스토리 펴냄)
- 여행의 이유 (김영하 지음, 문학동네 펴냄)
-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 (이소영 지음, 소울메이트 펴냄)

당신의 일주일은 언제 시작되나요? 대부분 사람은 월요일이 한 주의 출발선일 것이다. 하지만 ‘실버북토크’는 금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매주 금요일 도서관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 그들은 굴곡 없이 3년째 모임을 유지 중이다.

“지영이의 삶이 나의 삶이었더라구요”, “여자의 일생이 아주 잔잔하게 흘러감을 마주했어요” 오늘은 얼마 전 다 같이 관람한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를 자신들의 인생으로 걸러낼 때 그들의 삶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조금 느리지만 찾아온 자료를 또박또박 말하려 애쓰는 이, 경청하며 노트에 꼼꼼히 필기하는 이... 과거의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가는 모습에는 푸근한 세월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 실버, 은처럼 반짝이는 삶에 책을 더하다

어르신들의 자체적인 독서모임은 누군가에겐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능동적이고 의욕 넘치는 독서모임을 꾸준히 유지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다른 독서동아리와는 다른 점을 느껴 관심과 지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실버북토크’이 함께 책을 읽는 방식 또한 남다르다. 어느 독서동아리처럼 책 한 권을 선정해 기간 내 읽어와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돌아가며 발표하는 날을 정한다. 이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야기를 끝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날 발표를 맡은 사람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이나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골라와 회원들에게 소개한다. 흥미로운 점은 발표 형식 또한 자유라 각 회원의 특색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이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조사해 곁들여 발표하는 사람도 있다. 그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파악해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쏟는 노고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초기에 ‘실버북토크’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모임이 아니었다.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였으나, 인원수가 작아 모임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때 김정미 대표가 합류하게 되면서 모임의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다. 이에 회원들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과 지인을 모임에 초대하면서 회원 수가 증가했다. 회원들이 모인 사연을 듣다 보면 인연은 작은 우연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알 수 있다. 모임 내 최고령자인 권시혁 선생님은 가산구립도서관에 매일같이 신문을 보러 다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서가 위층에 올라가 볼 것을 권했고, 그렇게 ‘실버북토크’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는 “다들 열심히 책 읽으려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결석 한번 없이 열심히 모임에 참석 중이다. 회원들은 너도나도 개근이라 외치며 모임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 그 모습은 어느 청년 못지않았다.

모임에 대한 애로사항을 묻자 그들은 입 모아 “없다”고 말하며, 대표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미 대표님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참여했으나, 지금은 ‘실버북토크’ 대표이자 회원이다. 부드럽고 귀에 쏙쏙 박히는 진행으로 회원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이 남달랐다. 간혹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나 갈피를 잡기 힘든 토론 주제도 대표님의 한마디면 순풍에 앞으로 뻗어나가는 배처럼 순탄하게 진행됐다. 그를 통해 회원들은 좋은 리더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 김정미 대표님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 해도 선생님들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해요”라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기

‘실버북토크’ 모임이 장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판단과 평가가 없다는 점이다. 모두가 서로의 경험과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오래갈 수 있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치열하게 애쓰는 세대와는 달리 회원들은 그런 짐을 덜어둔 상태다. 그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수용, 받아들임에 능숙한 것이다.

대부분의 회원이 누군가 앞에서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기가 선뜻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용기를 북돋아준 덕에 가능했다. 다른 이의 발표를 경청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보다 적절한 비판과 함께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나이대별로 전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쉽게 지나치던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공유한 이야기를 생활에서 실제로 실천하려는 노력도 하게 됐다. 건강에 관한 책을 이야기했을 때는 바르게 걸으려고 애쓰고 틴틈이 스트레칭했다. 이는 사소하지만 독서모임이 전달한 긍정적인 에너지임이 틀림없다.

어릴 때는 책을 서둘러 읽어 책장에 쌓이는 책을 위해 중압감 속에 독서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자리에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찾아왔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는 것’, 나이가 들고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깨달은 것이었다. 많은 양의 페이지를 읽고 버겁게 한 권을 완독하는 것보다 읽을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여유롭게 읽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그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책을 접하려는 노력을 통해 ‘있는 그대로’ 독서가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 03

## 10대들의 상상이 자라다

### 검은독서단

청년취재단 · 와이파이(이서연, 최현지)



모이는 곳

강남 스타디카페 토즈

모이는 사람들

중학생

추천도서

-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김유라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마크 해던 지음, 문학수첩 리틀북스 펴냄)
-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아쿠마루 가쿠 지음, 북플라자 펴냄)
- 파리대왕 (윌리엄 골딩 지음, 민음사 펴냄)
- 수난 2대 (하근찬, 박희성, 김응주, 김우철, 이지훈 (엮음) 지음, 삼성출판사 펴냄)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지만, 아직도 무더운 여름과 같은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말이다. 교육열이 높은 강남의 한 스터디카페에는 많은 학생이 모인다. 그중 스터디룸 G5에 모이는 학생들은 스터디룸을 빌리는 목적이 다르다. 한 손에 책과 노트북을 들고 나타나는 아직 앳된 얼굴을 한 ‘검은독서단’ 회원들. 그들의 목적은 공부가 아닌 독서를 하기 위해서다. ‘검은독서단’의 책에 대한 열정은 스터디룸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다.

### 최연소 독서동아리

10대 동아리 ‘검은독서단’을 우리는 윤이 좋게도 만날 수 있었다. 중학생들로 이루어진 ‘검은독서단’은 아무래도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아리이다 보니 각종 시험과 숙제, 수행평가 등 오히려 어른들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독서동아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어떤 동아리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밝은 에너지와 열정을 뽐내고 있다. 바로 그 수많은 증거 중 하나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동아리가 아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독서동아리라는 점이 아닐까 싶다.

###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독서동아리를 할 수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동아리 회원들에게 물어봤다.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활동하기 전부터 3년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한 이유는 학교 숙제를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반강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책을 읽는다는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점 책과 친해지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며 어머니께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권유를 해주신 덕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이 좋게도 선정되어 지금까지도 즐겁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위 의견에 동의했다. 모두 책의 매력을 느끼고, 이제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검은독서단’ 활동 시간이라고 답했다. 그리곤 책의 매력에 대해 말을 시작했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사람마다 책 속에 담겨 있는 의미나 뜻을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읽다 보면 결말이 궁금해져서 계속해서 읽게 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영화와 같은 영상을 보는 매체와 다르게 글을 읽는 것이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점이 좋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책의 매력에 대해 말하는 회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진정성을 가득 담아 말하고 있었다.

### 읽고 말하고 쓰는 독서동아리

‘검은독서단’이 다른 동아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읽고, 말하기에서 그치지 않고 쓴다는 것이다. 매주 모든 동아리 회원들은 각자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총 다섯 가지의 질문을 만들어온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책





의 줄거리를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선정한 다섯 가지의 질문들을 던진다. 동아리 회원들은 돌아가며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한다. 그리고 뽑은 질문 중 하나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에세이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의 답변은 모두 정해진 답처럼 같지 않고 모두 제각각이다. 서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덕분에 자신의 생각을 꾸밈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회원들이 작성한 에세이는 장르의 제약이 없었으며, 모두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양의 에세이는 그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흔적이었다. 동아리 회원들은 이렇게 매주 자신들이 활동하며 작성한 에세이를 모두 모아 문집으로 만들고 싶다며 수줍게 웃으며 포부를 밝혔다.

요즘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매체에만 의존하거나 중독되어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다. 글을 읽을 줄 알아도 독서를 하지 않아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때에 청소년 독서 모임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새로 또는 다시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큰 어려움인 이들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책은 결코 멀지 않으며,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검은독서단'이 증명해주고 있다.

## 04

# 책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인연 고궁독서

청년취재단 · 김규리



모이는 곳

서울 인근 카페

모이는 사람들

50대 주부, 직장인 등

추천도서

·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 지음, 돌베개 펴냄)

·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프리모 레비 지음, 돌베개 펴냄)

·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펴냄)

· 비행운 (김애란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 이수지의 그림책 (이수지 지음, 비룡소 펴냄)

사회에서 마음이 맞는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이나 직업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고, 일단 만들어진 모임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독서동아리 ‘고궁독서’는 이와는 거리가 먼 모임이다. ‘곤궁을 달게 여기고 학문에 힘쓰자’라는 뜻의 ‘고궁독서’는 30대부터 50대, 직장인과 주부를 포함한 11명이 모여 만든 독서동아리다. 8년 전, 글쓰기 강좌에서 처음 만난 회원들은 함께하는 시간에 재미를 느껴, 글쓰기 수업이 끝난 뒤에도 모임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함께 책을 읽는 것으로 새로운 모임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고궁독서’가 되었다.

### 책장에 남는 서로의 흔적

‘고궁독서’는 3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책을 읽는다.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호스트를 하는데, 그 호스트가 정하는 책을 읽거나 투표를 통해 책을 고른다. 이번 분기에는 지난 모임에서 다루었던 책이나 작가 중 좋았던 것을 다시 읽기로 해, 현재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는 중이다. 회원들에게 모임에서 다루었던 책 중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물었다.

“『소년이 온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 읽은 책이에요. 저는 원래 인문학이나 철학 서적 쪽을 굉장히 탐닉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계발서부터 시작해 비즈니스 같은 것과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읽다가 어느 날 인문학 서적을 읽었어요. 근데 이 모임에 오면서 처음으로 소설이 좋아져 읽기 시작했어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책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소개받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모임이 되게 소중한데요.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저는 주제라기보다는 작가가 생각이 나요. 프리모 레비를 이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것이 인간인가』, 『주기율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그런 걸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읽기 힘들고 가슴 아픈 책이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프리모 레비에 굉장히 매료돼 있었어요. 모임에서 프리모 레비를 추천받아서 선정됐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책이었거든요. 제가 가끔 책을 속아서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팔지 않을 책이에요.”

“저는 신형철 작가. 저희 모임에서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책을 했을 당시에만 해도 이 책이 너무 어렵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다음 모임에서 신형철 작가가 많이 언급됐고, 그래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봤는데 이 작가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모임이 아니었으면 접해보지 못했을 책,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책, 저는 그게 신형철 작가의 책이에요.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제가 너무 안 좋아해서 팔았거든요. 지금 후회해요.”

회원들은 서로 책을 추천하면서 취향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읽지 않았던 책들을 함께 읽고, 그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좋은 책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독서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고궁독서’ 회원들처럼 저마다 다른 독서 취향을 바탕으로 몰랐던 책을 공유하는 것 또한 매우 즐거운 일이다.

### 나눌수록 재미있는 독서

올해로 8년째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고궁독서’는 함께해온 시간만큼

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다. “80년 채울 생각입니다”, “저희 다 퇴직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려고요”라며 웃는 회원들의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다.



‘고궁독서’는 함께 읽기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추억을 쌓고 있다. 독서 기행이나 영화제, 책과 관련된 행사에 가기도 하고, 회비를 모아 미안마 도서관 건립에 기부한 적도 있다.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미술 수업을 함께 듣는 등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가끔은 선물도 주고받는다. 한 회원이 “저는 받기만 해서 되게 미안함을 느꼈고,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신청했어요”라고 말하자 다른 회원이 “몇 년 전부터는 우리의 에이스예요. 덕분에 이런 시간(인터뷰)도 가져보잖아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서로에게 칭찬과 고마움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로를 아끼는 회원들의 마음이 ‘고궁독서’를 지탱하는 큰 힘이 아닐까 싶었다.

“원래 제가 고집이 세고, 좋게 이야기하면 주관이 강하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설득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물론 꼭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나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책을 읽고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해가 안 돼’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일단 마음이 먼저 열려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서 들으니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못하더라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인정해

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함께 읽기가 라면이나 피자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면이랑 피자는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다른 사람이랑 먹을 때 더 맛있잖아요. 책도 혼자 읽어도 재밌지만, 같이 읽었을 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죠. 한 권을 읽은 날 열 분이 나오셨으면 한 열두 권을 읽은 듯한 느낌. 심지어 안 읽고 가도 읽은 느낌. (웃음)”

“내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나보다 격하게 공감을 해주면 이 책이 더 좋아지는 게 있죠.”

함께 읽을수록 책이 더 재미있고 좋아진다는 회원들은 앞으로도 함께 나이가 들어가며 ‘고궁독서’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고궁독서’는 책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깊이 쌓아가고 있었다. 나중에는 모여 살자며 농담을 건네는 회원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 동네북

청년취재단·김규리



모이는 곳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서구 일대

모이는 사람들

20대 청년

추천도서

-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지음, 김영사 펴냄)
- 이것이 선거다 (토미 더글러스 지음, 루아크 펴냄)
- 적과 흑 (스탈달 지음, 문학동네 펴냄)
-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지음, 민음사 펴냄)
-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지음, 에코리브르 펴냄)

하늘에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7시,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를 찾았다. 그곳에서 책 한 권씩을 앞에 둔 채 밝은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는 독서동아리 ‘동네북’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14년에 중학교 동창 3명이 모여 만든 독서동아리 ‘동네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지인을 불러 모아 현재는 11명의 회원들이 모임을 함께 하고 있다. 이날 만난 회원들은 모두 스물다섯 살 또래 친구들이었다.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졌다.

#### 자유로운 분위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모임을 만들고 싶어

또래 친구들로 구성된 만큼 ‘동네북’ 모임도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편하게 진행된다. 의무적인 규율도 없고 의견도 반말로 주고받는다. 회원들에게 모임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좋아 보인다는 말을 건넸다.

“책 내용에 대해 생각이 저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서로 너무 잘 아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직접적인 공격이 왔다 갔다 해요.”

“저희는 동갑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대다수가 학창시절부터 친했고,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가감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상대를 공격하고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꾸밈없이 직접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도 ‘잠시만’ 하고 치고 들어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토론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모임도 훨씬 풍부해져서 좋아요.”

회원들은 친밀한 분위기가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소 직설적인 의견도 주고받으며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회원들은 가깝고 친밀한 만큼 지각이나 벌금에 엄격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원래는 벌금제도가 있었는데, 다들 돈 없는 학생이라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벌금을 걷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북’은 이러한 부분을 상쇄할 만큼 토론의 풍부함이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자유로운 모임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해진 룰은 없지만, 의견을 모으고 배려를 하면서 ‘동네북’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 함께 읽고 함께 체험하다

‘동네북’은 매주 선정된 발제자가 모임을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원들에게서 책이나 영화를 추천받고, 투표를 통해 서너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을 추천한 사람은 발제자가 되어 해당 주의 모임 일정과 사회 등을 책임진다. 한 사람이 너무 자주 뽑힐 때는 뽑히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자율적으로 기회를 분배해 발제를 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사회학 서적인 『맹신자들』을 함께 읽었다. 발제를 맡은 회원이 저자에 대한 배경지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후 회원들은 서로의 감상평을 들으며 인상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회원이 책을 읽으면서 홍콩 시위와 브렉시트, 미국 우선주의가 생각났다고 말하자, 회원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함께 저자의 주장에 비추어 그 원인과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처럼 대화를 위주로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책을 읽고 그 주제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읽기를 즐기기도 한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채식주의를 다룬 책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였어요. 자극적인 제목이고, 내용도 되게 자극적인데 채식주의와 관련된 일반 상식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친구의 추천 도서였는데, 알지 못했던 분야를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그들의 입장을 체험하고 공감해보자는 생각으로 다음 모임 날 하루는 8명 정도가 채식을 했어요. 정말 못 할 짓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채식주의자들의 생활 패턴도 알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배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좋았어요.”

“지금의 방식으로 정착하기 전에 하나의 테마를 몇 달 동안 유지하는 방식을 실험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커피였어요. 커피라는 테마를 잡고 관련된 도서를 각자 자유롭게 선정해서 읽어오면 내용을 같이 이야기했고, 직접 유명한 카페에 가서 시음도 해봤어요. 그때 그 테마를 하면서 이런 방식도 나름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 독서를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보통 친구들끼리 한자리에 모이면 옛날얘기 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와 같이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저희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항상 새로운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돈독해지고 끈끈한 정이 생겨요. 그런 점이 이 모임을 뜻깊게 해요.”

“새로움. 책을 보는 관점도 그 전의 저와 너무 달라졌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게 아직도 새롭고 너무 좋아요.”

“‘동네북’은 안전지대 같아요.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견해나 인생관을 얘기할 때, 사회적인 인식과 동떨어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모나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해 말을 다듬어서 하는데, 여기는 굳이 인생관이나 도덕관을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춰 조각할 필요 없이 제 생각만 얘기해도 돼요.”

“제 삶의 일부예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뗄 수 없었던 모임이라고 해야 하나. 항상 만나왔고 얘기해왔고 같이 욕도 하면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제 일부가 된 거죠.”

‘동네북’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에서 서로에 대한 돈독한 애정이 느껴졌다. 회원들이 앞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동네북’이라는 작은 동네에 모여 그들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 06

# 다정한 온기와 따뜻한 세상 북소리

청년취재단 · 강주희



모이는 곳

서울 강동구 천일어린이도서관

모이는 사람들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추천도서

· 엄마의 의자 (베라 윌리엄스 지음, 시공주니어 펴냄)

· 마법 침대 (존 버닝햄 지음, 시공주니어 펴냄)

· 에드와르도 :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존 버닝햄 지음, 비룡소 펴냄)

· 팬티 입은 늑대 (윌프리드 루파노 지음, 마야나 이토이즈 그림, 키위북스 펴냄)

· 아빠, 나한테 물어봐 (버나드 와버 지음, 이수지 그림, 비룡소 펴냄)

오늘은 『팬티 입은 늑대』와 『엄마가 왜 좋아?』라는 그림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장을 넘기며 나긋나긋하게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 잠 못 들던 밤에 부모님이 읽어준 그림책이 생각나 스르르 잠에 들 뻔했다. 이야기가 짧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야기거리는 충분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엄마가 왜 좋아?』 그림책을 보며 회원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회원은 어릴 적 생선 살은 발라서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생선 머리만 먹던 엄마가 떠올랐으며, 자신도 부모가 돼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나머지를 갖다 보니 ‘나머지의 맛’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서 밀려오는 잔잔한 감동을 아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강동구에는 강동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뜻 있는 개인과 단체가 모여 연대하는 ‘희망키움네트워크’가 있다. ‘북소리’ 또한 2011년 희망키움네트워크에서 발족해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및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그림책 읽어주기’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북소리’는 소외계층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만들어져 강동구 내 열악한 지역 위주로 봉사를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책 사각지대’를 겹치면서 책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및 어린이집에서도 학습 프로그램이 위주였기 때문에 책을 접함으로써 아이들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아이들의 작은 컴퓨터가 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에 보답하듯 봉사자들이 오는 날만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다.

### 그림책으로 전하는 포근한 온기

누구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올망졸망 모여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에 귀를 쫓긋 세우던 기억 말이다. 왕비도 됐다가 백설공주도 됐다가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바꾸는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해 보일 수 없

었다. ‘북소리’ 회원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줄까? 주인공이 책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실감 난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런데 예상외로 그들의 물은 ‘그냥 읽어주기’였다. 대부분의 회원이 주부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줬던 편안한 느낌으로 봉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김영주 대표는 ‘북소리’를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동화구연처럼 과장되게 읽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다고 한다. 이러한 ‘그냥 읽어주기’는 과장된 연기나 몸짓이 아닌 본인 자체로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가가자는 취지에서였다. 또한 아이들에게 독후활동을 권장하지 않는다. 숙제처럼 독후감을 쓰고 질문을 받기보다 가벼운 분위기에서 책과 친해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책보다는 스마트폰에 골몰히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흔하다. 그래도 봉사자가 책을 읽어줄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야기가 끝난 후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것을 찾아가는 건 오롯이 아이들 몫이었다. 그렇기에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일이 중요했다.

책 선정 방식은 자유롭게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흥미 있는 그림책을 선정한다. 또한 SNS를 이용해 반응이 좋았던 책이나 회원들의 추천 책을 게시한다. 다들 좋은 그림책을 고르는 데 일가견이 있어 서로가 추천해주는 책은 다음 봉사 때 읽을 책으로 참고한다. 봉사 일정은 회원마다 방문하는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회원들끼리 모이는 월 모임에서는 각자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기를 공유하는 자리다.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책을 읽어줬는지,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최근 인상 깊게 읽은 그림책을 직접 가져와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읽어주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어린이날에는 책 잔치에서 자체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 그림책 속 따뜻한 세상이 오길 바라며

몇 년째 매주 시간을 내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러 간다는 안영미 회원은 “제대로 배워서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해야겠다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적성과 잘 맞아서인지 이제는 습관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림책을 접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고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아도 마음이 치료된다’는 치유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

그림책은 아이와 부모를 연결해주는 오작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민근영 회원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림책을 건넨다고 한다. 그렇게 아이는 엄마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는 봉사 중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입을 아~ 벌리고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기분이 참 좋다고 한다. 네 살짜리 꼬마랑 어느 지점에서 무언갈 공유하는 느낌, 거기에서 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곤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다. 시끌벅적하던 월 모임은 초창기보다 회원 수가 몰라보게 줄어 현재는 활동인원이 7명 정도다. 이에 신입모집 강좌와 워크숍을 개최해 신입모집에 힘쓰고 있다. 보수나 경력이 기재되는 게 아닌 순수한 봉사활동이라 본인 생활이 바빠지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회원들 또한 처음에 30분씩 꾸준히 시간을 내야 함에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그림에도 봉사를 통해 얻은 것들이 있기에 오랫동안 모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함께할 신입회원들이 ‘북소리’의 문을 두드리주길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며 \_ 안영미

어렸을 때 책을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으면 어른이 된 후에도 그 기억을 쫓아 책을 찾아가게 된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우리가 전한 책의 온기를 통해 그

들이 책과 함께 자라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_ 김영주

그림책의 페이지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다. 누구든 끄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 장면을 품은 아이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없는 다른 이들과는 정서적으로 확실히 다르다. 나 자신도 마음을 튼튼하게 키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됐다. 봉사를 통해 만난 아이들이 그 밑바닥에 어떤 장면들을 통해 마음을 튼튼하게 다져서 자라났으면 한다.



## 상상력을 담아 글에서 그림으로

### 붓

청년취재단·와이파이(이서연, 최현지)



모이는 곳

서울 마포구 아크AC

모이는 사람들

그림 작가들

추천도서

- 100 인생 그림책 (하이케 팔러 지음, 발레리오 비달리 그림, 사계절 펴냄)
- 민들레는 민들레 (김장성 지음, 오현경 그림, 이야기꽃 펴냄)
- 어서 오세요 (세바스티앵 조아니에 지음, 요안나 콘세이요 그림, 웅진주니어 펴냄)
- 피너츠 (찰스 M. 슐츠 지음, 북스토리 펴냄)
- 바깥은 여름 (김애란 지음, 문학동네 펴냄)

2호선을 타고 합정역에 내려 골목을 돌아 걷다 보면 회색빛 카페가 보인다. 카페의 테라스로 나오면 울창한 나무 옆에 카페와 대비되는 하얀 문이 나타난다. 간판도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 여기가 바로 ‘붓’ 회원들이 모이는 ‘아크 AC’다. 흰 벽을 비춰주는 은은한 조명과 흰 테이블이 눈에 띄는 곳이다. 오후 1시가 되자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스케치북 하나씩을 들고 그려 온 그림을 꺼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넓고 비어 보이던 아크 AC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해진다. 화요일 오후 도심 속에서 그림과 함께하는 이들, ‘붓’동아리 회원들이다.

‘붓’은 생긴 지 세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동아리다. 회원들은 작년 7월 그림책 워크숍에서 처음 만났고,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함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 그림책 위주의 활동에서 탈피해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서 하게 된 이유도 있다고 한다.

이날은 4명의 회원이 모였다. 모두 여성이고, 그림 작가들이다. 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모임이 끝나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서로가 궁금하다고 한다. 서로를 이어주는 그림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한다.

### 한국 사회의 여성이라면 공감할 수 있어

‘붓’의 2019년 모임은 한국 여성 작가의 문학 탐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들 모두가 한국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찾고자 했고, 여성 작가들이 쓴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한다. 연령대가 비슷한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 많은 공감이 되는 만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데, 타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인생을 비추어보고 화자의 감정 깊숙한 곳에서 머물러보는 경험이 특히 좋다고 한다.

“공동 목표가 아이를 키우는 거였던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다가 나와서 그림에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너무 재밌었어요.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독서모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림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즐거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았죠.”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인생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작가들이 만들어놓은 단어를 엄청 잘 골라서 정수를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그림 작가로서, 이들이 가장 공감하고 깊숙이 빠져들 수 있는 주제는 바로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었다. 연령대가 달라도 여성으로서 나누는 고민은 같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 모임 도서인 『나의 아름다운 이웃』을 읽고 그린 그림을 보면서 나눴던 대화에서, 이들의 서로 연결된 마음을 느끼고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

### 그림과 함께하는 독서모임, 서로의 가능성을 보는 시간

‘붓’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작가들의 모임이라는 특성을 살려 책을 읽고 각자 해석한 그림을 그려 와서 대화를 나눈다. 단순한 대화에서 한 단계 나아가 그림과 함께하는 토론은 회원들이 서로 응원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된다.

“책을 읽으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문학과 표현을 위한 장치들이 서로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을 찾는 것도 즐거워요.”

혼자 그림을 그릴 때보다 서로 고충을 나누면 훨씬 즐겁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 회원들 모두 그림과 책, 그리고 ‘붓’에 대한 애정

이 커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 목표는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는 것

이들은 회원들만의 모임에서 한 발짝 나아가 11월 초에 전시회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모임 구성원 밖의 사람들과도 그림을 공유하고 싶다고 한다.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서 받은 지원금도 앞으로는 전시 행사와 관련해 쓸 예정이고, 모임을 이어가면서 전시도 꾸준히 할 계획이다. 꾸준히 전시를 하기 위해 11월에 있을 전시를 마무리하면 이어서 다른 전시장도 예약해야 한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이들이 모임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독서의 즐거움이다.

현재 모임 주제인 한국 여성 작가의 책을 읽고 나서는 남성 작가의 책, 고전과 인문학 등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싶다고 한다. 회원들 모두 재밌게 꾸준히 동아리를 이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더 성실하게 모임에 임하고 있다. ‘붓’이 3개월에서 6개월, 1년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또 어떤 매력적인 그림들을 탄생시킬지 궁금해진다.

‘붓’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림이라는 우주 속으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었다. 짧은 글과 사진에 밀려 독서와 그림을 잊어가고 있는 요즘, 쌓아둔 책을 꺼내 읽고 연필을 들어 상상력을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글자가 모여 글이 되는 것처럼 선 하나로부터 그림은 시작된다.

화요일 오후 합정에는 책과 그림이 함께해 더 다채로운, 무채색의 아크 AC를 색연필과 물감의 유채색으로 채우는 ‘붓’ 동아리가 있다.

## 함께 평화를 고민하다

### 수평회

청년취재단·김규리



## 모이는 곳

서울 종로구 독립서점 '레드북스'

## 모이는 사람들

20~50대 학생, 직장인 등

## 추천도서

· 고기로 태어나서 (한승태 지음, 시대의창 펴냄)

· 젠더와 민족 (나라 유발 데이비스 지음, 그린비 펴냄)

· 생명의 여자들에게: 엉망인 여성해방론 (다나카 미쓰 지음, 두번째테제 펴냄)

· 함락된 도시의 여자: 1945년 봄의 기록 (익명의 여성 지음, 마티 펴냄)

· 나치의 병사들: 평범했던 그들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칭케 나이첼, 하랄트 벨처 지음, 민음사 펴냄)

### 평화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 참으로 간단한 한 줄 정리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수많은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는 요즘, 평화에 대한 답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수요일 저녁,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서대문구의 작은 독립서점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격주 수요일마다 독서모임 '수평회'의 회원들이 함께 책을 읽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고민과 실천을 통해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고 싶어

'수평회'는 '모든 폭력과 차별에 맞서 평화를 지킬 궁리를 하는 사람들의 수요 평화 모임'을 줄여 만든 이름이다. 2018년 늦여름, 전쟁과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에서부터 평화에 대한 '수평회'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고민은 미군기지를 떠받치는 기지 자본주의와 기지촌 여성들의 삶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성 산업화 문제와 페미니즘, 퀴어 이론으로 관심사가 확장되었다.

“‘평화’라는 커다란 주제를 하나 정했어요.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서의 평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페미니즘과 퀴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눈여겨보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억압은 훨씬 복잡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보기 위해 여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자본에 대한, 고병권의 『다시 자본을 읽자』 시리즈를 읽고 있어요.”

모임의 관심사가 흘러감에 따라 선정하는 책의 주제도 달라진다. 명확



한 도서 선정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참고문헌을 보고 흥미가 생기거나 회원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도서를 선정한다. 한 회원은 “읽은 책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읽었는지,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수평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본이다. 인터뷰 당일, 회원들은 고병권의 『다시 자본을 읽자』를 읽고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 6주 동안 『다시 자본을 읽자』를 6권까지 읽었고, 다음 시간에는 저자와 북토크를 연다. 겨울방학에는 7권부터 12권까지 읽고, 방학이 끝나면 저자와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 차별과 폭력을 인지하고 깨닫는 과정

“‘수평회’는 20대부터 50대까지 있고, 직업도 다양해요.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평화 의료 연대, 병역거부자, 대학을 안 가고 대학 밖에서 공부를 하려는 친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사회에서의 직급이 여기에서는 안 통해요.”

차별과 폭력, 평화를 이야기하는 모임이니만큼, 진행 방식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공론장에서의 호칭은 모두 ‘ 쌤 ’이다. 회원들은 “사식에서는 관계에 따라 반말도 하지만, ‘꼰대’는 살아남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웃으며 말했다. 리더로서 이끄는 것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자나 리더도 정하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권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의 자리를 장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오늘 말을 많이 한다 싶으면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말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근데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말하는 것도 이상해요. 말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말하고, 발제도 자발적으로 해요. 관심 있는 주제로.”

“차별과 폭력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면서 드러나기도 해요. 서로 그게 차별, 폭력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차별이 될 수도, 폭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계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서로 강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과정이 다 다르니까요.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직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맞아요.”

회원들은 함께 책을 읽으며 평소 생각지 못했던 차별이나 폭력을 깨달을 때가 많다고 전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을 모임에서 다시 읽으면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누구와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책이 다르게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힘들지만 재미있는 놀이터

‘수평회’가 어떤 의미인지 묻자 회원들은 ‘놀이터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회원은 “뽕센(?) 놀이터예요. 되게 열심히 놀고 집에 가면 땀이 난다니까요”라며 웃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라며 힘듦(?)을 토로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다 같이 영화제에 가는 등 분위기를 푸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한 회원은 “저는 이번 세미나까지 1년 반 정도 하고 다음 학기는 너무 바빠서 쉴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여기 올 때가 제일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와야 살아 있는 느낌이고 학교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요”라며 ‘수평회’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무언가를 지향하지 않는 게 우리의 지향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멤버들이 답답해했어요. 왜 모였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근데 지향점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지향점을 생성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계획도 사실 창피하지만 무계획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것 같아요. 이거 해볼까? 하면 닥치는 대로 해보고,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았던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요.”

“딱 정해놓은 건 없지만, 개개인이 이 모임을 통해서 변화되고 자신의 계획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이 나선형으로 수렴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다 제각각인 것 같았는데, 여기서 공부했던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교류가 되거든요. 처음에 설정하지 않았던 지향점이 저절로 발생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회원들은 ‘지향점을 함께 생성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전했다.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도록 비워두고 함께 채워나가겠다는 포부가 ‘수평회’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평회’는 ‘우리가 바뀌는 만큼 세계도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임을 이끌어간다. 큰 바다에 잔잔한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엄청난 파도가 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바람이 바다를 계속 흔들면 언젠가 파도가 이는 것처럼, ‘수평회’가 만드는 작은 변화들로 인해 세상은 분명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 09

# 더불어 살기 위한 독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다 연지

청년취재단 · 육소연



모이는 곳

몽당연필 본부

모이는 사람들

몽당연필 후원자, 재일조선인 연구자, 출판사 직원 등

추천도서

-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 1945년 이후의 한국·일본·재일조선인  
(윤건차 지음, 창비 펴냄)
- 르포 교토 조선학교 습격사건 (나카무라 일성 지음, 도서출판폼 펴냄)
-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 (배지원 조경희 역음, 선인 펴냄)
- 제주도의 흙이 된다는 것 (김창생 지음, 전방 펴냄)
- 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 (량영성 지음, 산처럼 펴냄)

## 우리가 외면한 동포,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재일조선인은 일제 식민지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거주하게 된 교민을 가리킨다. 이들은 생활기반을 빼앗겨 도일하거나, 강제노역 등으로 자의와 무관하게 일본에 거처를 옮기게 된 사람들이다. 해방 이후 대다수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60만 명의 교민들은 미처 돌아오지 못하거나 일본에 잔류하기를 선택했다. 일본에 남은 재일조선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미래를 꿈꾸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국어강습소를 만들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가 만들어졌고, 동포들의 도움으로 조선학교가 세워졌다.

기나긴 역사의 고통과 해방의 기쁨을 함께한 재일조선인은 우리의 동포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일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고국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살아가야 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에도 일본인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건너간 땅에서 또다시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 자신의 본거지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재일조선인이라 부른다.

독서동아리 ‘연지’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한데 모였다. 또한 재일조선인, 조선학교에 대한 편견을 교정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수정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기 위해 함께 읽는다. ‘연지’ 회원들은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와 같은 재일조선인·조선학교 역사서부터 『제주도의 흙이 된다』 등 재일조선인 문학작품을 읽으며 이들이 처한 현실과 삶의 형태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목적을 찾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얻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즉, 독서를 위한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개인의 발전에 대한 욕구에

있다. 하지만 독서는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도록 인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서의 순기능은 개인의 이기심을 공동체에 대한 이타심으로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지’는 독서의 지평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하고 있다. 회원들은 자신과 무관하게 보일 수 있는 소수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재일조선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지’와 재일조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연지’ 회원들이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박종분 회원은 재일조선인을 위한 순회공연을 보면서 재일조선인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 후 가족과 함께 일본에 가면 조선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말을 이었다. 기준성 회원 또한 우연한 계기로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가 처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도서관에서 재일조선인에 관해 서술된 역사서를 읽게 된 것이다. 그 후 방송 매체를 통해 조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재일조선인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구상했다고 한다. 이전부터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윤송아 대표는 <몽당연필> 강사로 초빙되면서 ‘연지’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어서 윤송아 대표는 국내에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저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 많지 않다며 연구자로서 ‘연지’라는 모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회원들이 재일조선인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우연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 모두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현재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약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들을 위해 선뜻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회원들은 보다 더 넓고 아

름다운 마음을 가진 듯하다.

###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바람

이날 회원들은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를 읽으며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확립 문제부터 교육 문제까지 재일조선인이 현재 직면한 사회적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회원들의 목소리는 간결하지만 사뭇 진지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으며 이내 차분해지기를 반복했다.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생활을 하는 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회원들의 이야기다. 남과 북에서 함께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을 차별한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학교를 인정하는 것은 곧 일본 내에 재일 동포들이 많아지게 된 역사적 원인을 인정해야 하므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와 재일 동포를 차별하고 있었다. 1949년 일본은 전국의 조선학교를 강제 폐쇄하고, 조선학교를 국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정치적 관점으로 재일조선인을 압박하기도 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본거지를 찾아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을 재일조선인에게 ‘연지’ 회원들은 일종의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반도의 불행한 과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아픈 상처까지 모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학교다. 조국은 둘로 갈라져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고, 동포들이 돌아와 살 기반도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본 땅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연지’의 바람은 우리가 역사의 아픈 손가락인 재일조선인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보듬어주자는 것이다.

‘연지’는 이어서 재일조선인의 문학적 기반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문학작품이 언어적 한계로 인해 쓰

이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출간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의 문학이 널리 알려지면 재일조선인이 처한 정치적 차별이 공론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삶의 질 또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회원들은 조선학교가 단순히 재일조선인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동포들과 문화 교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이타심을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종종 안쓰러운 시선을 보낸다. 이러한 현실에서 타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모습은 쓸데없는 행동으로 폄하되기 마련이다. 어쩌면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마음은 정신적 성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받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값지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소수자, 약자들의 문제는 비교적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더욱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소외된 곳에서도 빛나는 마음으로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기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 먹지 않고 사랑하는 법

### 채식한권

청년취재단·강주희



모이는 곳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 마을책방

모이는 사람들

채식을 실천하는 10~20대 청년들

추천도서

-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 (반다나 시바 지음, 책세상 펴냄)
-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지음, 에코리브르 펴냄)
- 씨앗 할머니의 비밀 (김신호정 지음, 소나무 펴냄)
- 사랑할까, 먹을까 (어느 잡식가족의 돼지 관찰기 (황윤 지음, 휴 펴냄)
- 육식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지음, 시공사 펴냄)

너무 바빠서 자기가 먹는 게 무엇인지 신경도 못 쓰고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우리네 일상. 그럼에도 올바른 먹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채식한권'은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모이는 채식 독서동아리다. 하자센터에서는 실명 대신 서로의 별명을 불러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그곳에서는 나이, 학력, 사는 곳에 상관없이 오롯이 자신이 정한 이름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모인다. 하자센터 내 마을책방에서 실제로 채식을 실천 중인 이들이 모여 매주 비거니즘과 환경에 관련된 책을 읽고 건강한 삶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 작고 푸른 행성을 위해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 싫다고 거부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할 거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일상이.’ (『사랑할까, 먹을까』에서)

#### 다들 어떻게 모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산하 단순히 책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공부할 수 있는 독서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 몇 명이 모여 책도 읽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책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들을 알음알음 모아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 어떤 방식으로 같이 책을 읽나요.

칩코 책 선정은 자유롭게 이뤄져요. 이전 책이 읽기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읽기 쉬운 책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기도 해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생기는 궁금증이 다음에 읽을 책을 선정할 때 영향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 책을 읽고 있는데 화학물질에 관심이 생기면 다음 책은 화학물질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그런 식이죠. 다들 비거

니즘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이나 동물권 보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된 책도 종종 읽고 있어요.

**유나** 격주에 한 번 이뤄지는 ‘채식 한 접시’ 요리모임도 독서모임과 함께 진행해요. 채식 한 접시에서는 언니네 텃밭(여성농민공동체) 재료를 사용해 요리를 해 먹어요. 하자센터 내 있는 부엌을 이용해서 요리를 진행해요. 채식하기 전에는 내가 먹는 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별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농민들이 만든 제철 농산물을 받아 요리한다는 경험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채식 한 접시는 비건이 아니어도 책 읽기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모여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채식한권’이 지향하는 독서동아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칩코** 꾸준히 만나는 곳. 다른 책모임은 모임 횟수가 적다 보니 덜 친해졌던 것 같아요. 여기는 자주 보니까 같이 밥 먹고 놀러 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꼬리** 피상적인 옹고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냈을 때도 안전한 곳. 내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생기는 장애물과 이런 것들을 말하길 두려워하지 않고 터놓고 보듬어주고 같이 가는거죠.

**산하** 매주 만나 이야기하는 곳. 어쩌면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생각과 고민이 달라요. 언제든지 고민을 꺼내놓을 수 있고 같이 고민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나** 더 복잡적이고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해주는 곳. 앞으로는 비건이 아닌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비건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서동아리를 통해 다들 책 읽는 시간이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보석** 앞으로 더 자주 나와야 하는 곳.

## 우리 자신이 곧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변화가 되도록

‘달레마라는 건 익숙했던 관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잠깐 멈추는 순간이다. 누군가는 다시 관성으로 돌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길로 갈 것이고, 누군가는 중간 어디쯤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사랑할까, 먹을까』에서)

**‘채식한권’만의 특별한 점은 뭔가요.**

**칩코** 채식한권은 말이 가장 잘 통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비거니즘 페미니즘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죠. 사실 다른 곳에서 이 정도 공감을 얻긴 힘들어요. 어떤 말을 해도 모두 이해하고 알아주기 때문에 좋아요. 그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비폭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산하** 다른 책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나이,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하자센터에서는 그런 걸 벗어나 인간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험이 좋았어요. 그리고 비건을 실천하고 있어도 가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책모임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비건에 대해 상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 더 으쌰으쌰 다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꼬리** 책모임 참여자 전원이 비건이라는 점. 특히 사회문제를 다루다 보니 토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연령대가 낮아서 그런지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를 얘기할 시간이 많아요. 기성세대와는 다른 변화를 이야기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답답함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요즘 ‘채식한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산하** 화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가 내 식탁에 차려질까?’죠. 결국 나 자신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

고, 사회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밥상은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해요. 어디서 어떻게 길러지는 식자재를 사야 할지 그걸 또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차려 먹을지에 대해서요.

**꼬리** 자급자족하는 삶. 우리가 폭력적이지 않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사는 게 현대문명 안에서 불가능해지고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죠. 기후변화는 빠르게 다가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급할 수 있을까요.

**유나**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에 대해 계속 고민해요. 동물을 안 먹는 건 개인이 할 수 있어도 쓰레기까지 만들지 않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새는 최대한 플라스틱 프리로 장을 봐요. 포장지 많은 유기농 재료와 포장지 적지만 생산 과정을 모르는 재료 중에서는 무엇을 택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는 사소한 문제일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에 마음 아파하는 제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해요.



모임이 시작되자 5명의 회원들은 파트별로 책을 읽고 인상 깊은 점은 밑줄을 그어 온 후 왜 밑줄을 긋게 됐는지 자유롭게 말했다. 한 사람이 말하면 그 위에 차례로 이야기가 얹어져서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발전했다. 갑론을박의 치열한 토론이 아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모습이였다. 독서모임이 끝난 후에는 격주로 진행되는 ‘채식 한 접시’를 위해 하자센터 내 주방으로 모였다. 그들은 갖가지 유기농 재료로 능숙하게 요리

를 시작했다. 꼼꼼하게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향을 맡아보는 그들에게 채소를 아끼는 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싱싱한 재료로 즐겁게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 일,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 그 세 박자가 고루 어우러져 ‘채식 한 접시’의 풍성한 식탁을 만들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식요리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채식을 실천하는 그들을 보며 먹지 않고 사랑하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채식한권’은 연대라는 씨앗이 모여 변화가 싹트는 텃밭이었다. 청년들은 책뿐만 아니라 일상과 고민을 공유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삶’을 주제로 하나로 연결됐다. 그들이 일궈낸 일상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변화도 조금씩 싹트길 바라며, 칩코, 유나, 보석, 꼬리, 산하의 식탁을 응원한다.

## 직장인들의 독서생활

### 아름다운 구속

청년취재단·배달의독서(김민지, 박아현)



모이는 곳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도서관 또는 카페

모이는 사람들

계명대학교 행정직원

추천도서

-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지음, 지식은만드는지식 펴냄)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채사장 지음, 한빛비즈 펴냄)
-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이지성 정희일 지음, 다산라이프 펴냄)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현대문학 펴냄)
- 생각하는 늑대 타스케 (서재근 지음, 휴먼큐브 펴냄)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는 하나의 시간, 저녁 퇴근길. 도심 곳곳에 있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불빛이 반짝인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의 표정이 빛이 나고, 이 전체의 빛의 시간을 덮는 노을이 울려 퍼질 때, 또 다르게 자신들의 사고에 새로운 빛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노을의 색과 닮은 붉은 갈색 벽돌로 둘러싸인 계명대 성서캠퍼스 도서관 작은 카페에서 책과 함께 동그랗게 앉아 독서의 향연을 꽃피우는 사람들. 고단한 업무에도 피곤할 법한데,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땐 누구보다 생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계명대학교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독서동아리 ‘아름다운 구속’ 회원들이다.

#### 독서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OK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독서를 해야 인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동아리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구속’에서 활동하는 한 회원의 말이다. 다들 독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바쁜 업무로 쉽게 시작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은 계명대학교 행정직원들은 각자의 뜻을 모아 2017년 11월부터 ‘아름다운 구속’을 시작했다. 현재 1기와 2기 멤버들을 포함한 인원 9명이 퇴근 후 매달 수요일마다 도서관이나 작은 카페에서 독서 토론 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구속’의 여러 가지 규칙 중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연구년’이다. 자신의 업무나 집안일로 너무 바빠면 잠시 휴식 기간을 갖고 난 뒤, 안정되면 복귀할 기회를 주는 규칙이다. 독서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이다.



## 독서로 바뀐 나의 직장 생활

“독서동아리 활동이 삶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나요?”

독서동아리 활동에서 깨달은 것을 계명대학교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묻는 기자의 말에 한 회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회원이 곰곰이 생각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한 회원은 독서동아리 초기에 읽었던 책 『생각하는 늑대 타스케』를 소개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소통 방식을 직장생활에서 실천했다고 한다.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원활한 대화를 통해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 다른 회원은 독서동아리로 책을 가까이하게 되면서 최근 화두가 된 책 『90년생이 온다』를 읽었다고 한다. 책을 읽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90년대 생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책을 자신 있게 직장 동료에게 추천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구속’ 활동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들의 직장에 좋은 영향을 끊임없이 끼치고 있었다. 이처럼 독서를 통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타인이나 단체에 미치면 어떤 변화의 물결이 찾아올지 무척이나 기대된다.

## 다채로운 방법으로 찾아가는 그 달의 토론 책

어느 그룹이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는 한 명이라,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아름다운 구속’의 방식은 특별하다. 매달 모

임의 리더를 선정한 뒤, 리더의 추천 책을 그 달의 토론 책으로 정해 독서와 토론을 진행한다. 각자 관심 있는 책 분야가 다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도서관을 이용한다. 도서관에는 대학생 독서 토론 동아리를 위한 추천 책 목록이 있다. 계명대학교 사서들이 대학생 독서동아리를 위해 꼼꼼히 선정해 추천 목록을 만든 것이다.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해당 책들은 열 권씩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구속’의 회원들은 계명대학교 사서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다가가기 쉽고 믿을 수 있는 책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독서동아리 활동을 기념하는 우리만의 방식

“환경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와요. 대화도 더 진솔하게 되고요.”

독서동아리 활동 중 인상 깊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회원의 대답이다. ‘아름다운 구속’ 회원들은 7월 4일에 강정 고령보 쪽에서 캠핑 독서 토론을 했다. 평소처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도서관 스터디룸이나 작은 카페에서 하는 것이 아닌, 맛있는 음식, 신선한 공기와 어두운 밤하늘에 수놓인 별들을 바라보면서 독서 토론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야외에서 진행되어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색다른 감수성이 솟아났다고. 앞으로 곧 독서동아리 활동이 2주년이 되는데, 2주년 기념으로 다른 곳에서 할 계획이 없냐고 묻자 “해외에서 할까요?”라는 능청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한다. 2주년 기념으로 색다른 환경에서 독서 토론하며 또 어떤 추억을 쌓을지 그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갑질’이나 ‘꼰대’ 등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부정적인 단어들로



얼룩진 이 시대의 직장생활에, 독서라는 공통점으로 직장 독서모임을 만드는 것은 참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관심사로 대화의 시작을 알리고 친밀함이 더해져 마음의 문을 여는,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직장 생활에 '아름다운 구속'은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 12

# 그림책으로 소통하다 얘기보따리

청년취재단 · 김규리



모이는 곳

인천 연수구 연수동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모이는 사람들

40대 주부 등

추천도서

- 어처구니 이야기 (박연철 지음, 비룡소 펴냄)
-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박연철 지음, 시공주니어 펴냄)
- 엄마 마중 (이태준 지음, 김동성 그림, 보림 펴냄)
- 강아지똥 (권정생 지음, 정승각 그림, 길벗어린이 펴냄)
- 엄마 까투리 (권정생 지음, 김세현 그림, 낮은산 펴냄)

하늘이 그림처럼 파랗던 8월의 어느 여름날, 인천 연수구의 골목 사이사이를 걸어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건물로 들어갔다. 도서관 문을 열자, 온 벽에 빼곡하게 꽂혀 있는 그림책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에서 독서동아리 ‘얘기보따리’ 18기 회원들이 책상 앞에 둘러앉아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그날의 날씨만큼이나 잔잔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마음이 절로 편해졌다.

###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독서모임

‘얘기보따리’는 인천의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이 주관하는 독서동아리로, 1년에 한 번 새 기수를 모집해 활동을 이어간다. 인터뷰를 진행한 회원들은 2013년에 ‘얘기보따리’ 18기로 처음 모여 6년째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아이들 그림책 보는 안목도 기르고, 우리가 몰랐던 책들도 알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책 읽어봐’ 하고 추천할 수도 있고, 같이 읽으면서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어요.”

아이들의 그림책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얘기보따리’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금은 동화 외에 다양한 장르의 책도 함께 읽고 있다. 처음 1년 동안은 한국 작가의 그림책을 골라 각자 선호하는 그림이나 작가를 돌아가며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했다. 이후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전 세계의 동화를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그림책, 동화책 외에 다양한 장르의 책을 같이 읽기 시작했다.

“처음 모임 취지는 아이들 그림책 공부였는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한국 동화, 외국 동화를 공부하고 고전도 읽어요.”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림책에서 장

르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모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어린이·청소년 문학과 작가를 공부하기 시작한 ‘얘기보따리’는 6년 차에 접어든 지금, 고전이나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책을 선정해 함께 읽기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함께 읽고 있으며, 틈틈이 『방정환 전집』도 강독한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는 동시에 회원들 공통의 관심사나 다양한 장르를 함께 읽으며 ‘얘기보따리’만의 독서 토대를 탄탄히 쌓아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 그림책이 주는 메시지를 배울 수 있어

그림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된 모임이지만, 모든 회원이 처음부터 그림책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회원은 그림책을 볼 때 그림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내용이 재미없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얘기보따리’에서 그림책을 읽다 보니 글이 주는 메시지 외에 그림이 주는 메시지를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그림책에 공감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회원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에 눈길을 주는 시간도 많아졌다. 엄마가 『코스모스』를 읽는 모습을 본 아이가 칼 세이건에 관한 만화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 소파에 올려놓은 책을 펼쳐 보더니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질문을 던지곤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책을 읽어줄 때 저는 설명을 많이 해주지 않아요. 한 권의 책도 저마다 느낌이 다른 것처럼, ‘이건 이렇대’라고 말을 하는 건 제 의견을 주입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평은 개인의 자유잖아요. 나는 빨강다고 얘기했지만 파랑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주의여서 (아이에게 책을) 자유롭게 보여주고 나중에 느낌이 어떤지 정도를 묻죠.”

“엄마가 자기가 읽은 동화책을 똑같이 읽고, 자기가 한마디 했을 때 저도 한마디 톱 하면 아이가 별말은 안 해도 좋아하는 게 표정에서 보여요. 같은 책을 읽었고 어느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더라고요.”

### 이제는 일상생활의 힐링 프렌즈가 되다

회원들에게 ‘얘기보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묻자, ‘힐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힐링. 저희는 웃으면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아이들이 밥 혼자 해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돌아다녀 보자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여기는 일상생활의 ‘힐링 프렌즈’가 됐어요.”

“‘얘기보따리’는 가족을 제외한 온전한 내 편이에요.”

회원들은 서로를 ‘힐링’, ‘내 편’이라고 칭하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한 회원은 “여기서 책을 통해 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법도 배웠고, 우리 멤버끼리도 정서적,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 참 좋았다”라며 ‘얘기보따리’에 애정을 드러냈다. 그림책을 매개로 만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는 서로에게 힐링이 되어주는 ‘얘기보따리’ 회원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졌다. 6년째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회원들은 이제 ‘함께’라는

말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이제는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보따리’의 따뜻한 에너지가 전해졌다.



## 독서동아리 10년의 깊이를 알고 싶나요 DIVA 독서 포럼

청년취재단·배달의독서(김민지, 박아현)



### 모이는 곳

카이스트 이만섭 교수 연구실

### 모이는 사람들

기업인, 대학교수, 창업가 등

### 추천도서

· 조선을 탐한 사무라이 (이광훈 지음, 포북 펴냄)

·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송숙희 지음, 유노북스 펴냄)

·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완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예 있구나 (법성 지음, 고려원 펴냄)

푸른 잔디와 오래되어 보이지만 세련된 건물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열정의 흔적이 묻은 다양한 과학 기구들과 하얀 가운들을 볼 수 있는 연구실이 가득한 공간. 바로 한국의 과학 인재들을 육성해내는 카이스트다. 각자 목표를 가지고 과학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의 열기로 뜨거운 공간은 매월 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다른 사람들에 의해 미리 달아오른다. 카이스트 이만섭 교수 연구실로 책을 들고 와서 배움을 갈망하는 눈빛을 장착한 채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 듯이 독서 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다. 이들은 바로 'DIVA 독서 포럼' 회원들이다.

### 10년의 과정을 담고 있는 독서동아리 역사책

'DIVA 독서 포럼'의 초창기 회원은 기업인들이었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서 기업인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워낙 바쁜 회원들의 스케줄 탓에 참석률이 매우 낮았다고 한다. 그래서 독립적인 단체로 탈바꿈해 대학 교수, 창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독서동아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 모임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면 믿어지는가. 'DIVA 독서 포럼'은 2019년이 지나면 11년의 역사를 가진 독서동아리가 된다. 'DIVA 독서 포럼'의 회장은 매월 화요일 아침을 두꺼운 노트에 기록한다고 한다. 모임 활동에서 선정된 책부터 회원들의 의견, 자신의 독후감 등이 담긴 'DIVA 독서 포럼'의 노트는 회원들의 열정을 기록한 기나긴 역사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여러 지식의 하모니가 펼쳐지는 미래지향적 독서 방식

“'DIVA 독서 포럼'은 샘플이에요. 왜냐하면 샘플은 새로운 것이 계속 솟아나면서 그동안에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지식을 옳은 방향으로 계속 정리해주니까요.”

“‘DIVA 독서 포럼’은 보약이에요. 가만 있다 보면 이곳저곳이 허약해지는데, 이곳에 다녀오면 지식 면으로 영양분이 자꾸 쌓여요.”

‘DIVA 독서 포럼’을 정의해 달라는 질문에 회원들이 답한 말들이다. 하나같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되었다. 회원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름 아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도에 발맞춰 나가려는 미래지향적 독서 방식 때문이다.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8월의 선정 도서는 『유튜브 레볼루션』이다. 그들은 8월 선정 도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책 읽기 활동에서 얻은 지식 ‘빅데이터’와 ‘유튜브’의 수익구조를 연결 지어 유튜브 산업을 설명했다. 그리고 각자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 기업 경영 방식까지 분석했다. 아직 8월 활동을 하기 전인데도 깊이 있는 독서 토론을 나누었다. 또한, 교수인 회원에게는 유튜브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독서 활동에 가져오면 좋겠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동향과 간단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만이 아닌,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DIVA 독서 포럼’의 토론 현장은 여러 색깔을 지닌 지식의 하모니가 잘 어우러지고 있었다.

### 워크숍? 독서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또 다른 방식

“시대에서 요구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년 1~2회 정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1년에 한 번 정도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회원들 간의 친목을 쌓아가고 있어요.”

현재 ‘DIVA 독서 포럼’ 회장의 말이다. ‘DIVA 독서 포럼’은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더 나아가, 회원들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실천적, 체험적으로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적

절히 활용하고 있다. 제일 인상적인 워크숍은 전 해군 대령으로 예편한 회원을 통해 2015년 1박 2일로 ‘저도’를 다녀온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함인 독도함에 승선해 해군의 역사와 역할, 독도함의 웅장함을 보고 해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회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 워크숍으로 저도 여행을 뽑았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독서라는 공통점으로 모여 있지만, 단순히 독서 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각자 영역의 정보를 활용해 독서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활동을 ‘DIVA 독서 포럼’의 회원들은 하고 있었다.

백세시대에 필요한 자극을 ‘DIVA 독서 포럼’에서 찾는다는 한 회원의 말은 꽤 인상적이었다. 혼자서 사색하며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독서 활동도 좋지만, 독서동아리에 참가해 여러 사람의 삶과 지혜, 경험을 나누는 독서 활동은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백세시대에 필요한 자극은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도 ‘DIVA 독서 포럼’은 서로의 삶이 상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독서동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대전에는 매월 1회, 두 번째 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 카이스트 이만섭 교수 연구실에 모여 독서 활동을 펼치는 ‘DIVA 독서 포럼’이 있다.

## 독서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별 별 헤는 밤

청년취재단 · 배달의독서(김민지, 박아현)



### 모이는 곳

대전시민천문대

### 모이는 사람들

대전시민천문대 직원, 다음 카페 '별이 가득한 하늘 놀이터' 회원

### 추천도서

-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지음, 열린책들 펴냄)
- 봉제인형 살인사건 (다니엘 콜 지음, 북폴라자 펴냄)
- 나미야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현대문학 펴냄)
- 어린 왕자와 함께 떠나는 별자리 여행 (이태형 지음, 북스타 펴냄)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지음, 김영사 펴냄)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헤는 밤>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 <별 헤는 밤>처럼 하늘을 빼곡히 수놓은 밤하늘의 별들에 깊은 의미와 정서를 독서로 되새기는 독서동아리가 있다. 대전에서 가장 어둡지만, 까만 밤하늘의 하얀 보석들이 잘 보이는 대전시민천문대에서 별과 함께 작가의 정신이 담긴 책을 읽고, 때론 계절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별자리를 보는 관측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별보다 빛나는 사람들의 모임, 독서동아리 '별 헤는 밤'이다.

### 자유롭게 독서하는 별 헤는 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별 헤는 밤’이 지향하는 독서 방식을 잘 나타낸 한 회원의 답변이다. 자율 독서 방식은 리더의 권유로 시행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의무 독서와 자율 독서를 섞어 할 예정이지만, 자신이 읽고 싶은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이 ‘별 헤는 밤’의 목적이라고 한다. ‘별 헤는 밤’의 토론 방식은 관심 분야가 다른 회사 동료들이 함께하기에,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토론 시간에 서평과 함께 책 소개를 한다고 한다. 다음 토론 시간에는 자신이 소개한 책을 읽은 다른 회원과 의견을 나누는데, 같은 책을 읽고도 다른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점이 흥미롭고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책을 묻자, 테이블 위에 쌓여 있는 다양한 책처럼 천문학 이외에도 추리, 시집까지 다양한 장르를 이야기해주었다. 한 회원은 천문학에 관련된 책 외에도 인문 고전 『난중일기』를 읽으며 별에 관한 기록을 찾고,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행성 주기에 관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며 ‘별 헤는 밤’ 회원들은 다양한 독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다양한 경험을 통해 즐기는 독서

“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작가기념관을 둘러보고 작가의 문학작품도 읽어보면서 작가의 삶과 문학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독서 활동을 묻는 말에 모임의 리더가 한 말이다. ‘별 헤는 밤’은 정기적인 별 관측회 같은 천문대에서의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한다. 박범신 작가가 쓴 소설 『소금』의 배경인 강경이나 익산에 있는 가람 이병기 문학관 등 작가기념관을 둘러본 것이다. 작가나 책과 관련된 각 지역을 둘러보며 작가의 삶과 문학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저자 초청 강연회를 통해서 작가를 직접 만나 작가가 책에서 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한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별 헤는 밤’의 회원들은 서로 더 돈독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책을 접할 때 내용 자체 뿐 아니라 작가의 삶과 의도를 생각하며 읽게 되었다고 한다.

## 별의 일생처럼 긴 시간 동안 함께할 우리의 행보

“앞으로도 변함없이 별을 사랑하고 별과 함께 독서를 하면서 마음이 여유롭고 따뜻한 독서모임을 계속하고 싶어요.”

‘별 헤는 밤’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묻자, 리더는 위와 같이 말했다. 굉장히 소박해 보여도 변함없이 꾸준히 진행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별 헤는 밤’은 단순히 다독이 목표가 아닌, 회원들의 독서 활동을 통한 교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별과 책을 사랑한다면 누구든 언제라도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 별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별의 일생처럼 긴 시간을 독서 동아리 ‘별 헤는 밤’과 함께하는 건 어떨까?

반짝이는 수많은 가로등, 곧게 뻗은 불 켜진 빌딩들, 밝은 빛을 내뿜는 스마트폰 등 빛

으로 가득 채워진 도시들 사이로, 독서를 통해 지식의 반짝임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둠 속에서 이 설레는 일을 독서동아리 ‘별 헤는 밤’은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끝내 새벽이 찾아오지 않아도, ‘별 헤는 밤’은 기나긴 밤 빛을 품은 별이 될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 책과 함께하는 새벽 시간

### 짜릿한 탈출 새벽독토

청년취재단 · 배달의독서(김민지, 박아현)



#### 모이는 곳

서점 '프레드릭 희망의 씨앗', 카페 회원의 집, 카페(노은 스타벅스)

#### 모이는 사람들

아이들의 엄마이자 독서가

#### 추천도서

· 안녕, 나의 등대 (소피 블랙홀 지음, 비룡소 펴냄)

· 야간 비행 (양두안 드 생텍쥐페리 지음, 문학동네 펴냄)

· 똑, 딱 (에스텔 비용 스파놀 지음, 여유당 펴냄)

· 흔들린다 (함민복 지음, 한성옥 그림, 작가정신 펴냄)

· 제인 에어 (샬럿 브론테 지음, 을유문화사 펴냄)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은 고요한 새벽, 책과 함께 짜릿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곤히 잠든 가족들이 잠에서 깬세라 조심스럽게 집 밖을 나선 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동화책이 가득한 특별한 서점에 모인다. 탁자에 둘러앉아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 햇살이 탁자 위 똑같은 책들을 비추고 있다. 책과 함께 아침을 연 하루가 쌓여 1년이 지났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이자 책을 사랑하는 독서가들의 모임, '짜릿한 탈출 새벽독토(이하 새벽독토)'를 인터뷰했다.

####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새벽 쟁탈전!

“새벽에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아이들이 깬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 가지 마’라면서 울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니 ‘엄마 책방 잘 다녀와’ 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새벽에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회원의 일화다. 회원 대부분이 한 가정의 아내나 엄마로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동아리 활동 시간을 새벽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새벽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회원이 귀중한 새벽 시간을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중 한 회원은 남편과 새벽 쟁탈전을 벌였다. 조기 축구회와 독서동아리 활동 시간이 겹쳐 남편과 조율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실패해 독서동아리 모임을 월 1회로 조정했다. 또 다른 회원은 새벽 6시 30분에 아이가 깨서 아이를 안고서 독서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새벽독토’ 회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 책을 읽으며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다

“책에서 삶의 일들에 대한 답이 나오진 않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 것 같아요.”

독서동아리를 통해 성장한 점을 묻는 말에 대한 한 회원의 답이다. ‘새벽독토’의 회원들은 책을 읽기 시작한 뒤 자기 생각이 생겼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생각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육아와 가사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 대한 생각 역시 넓어졌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회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책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생긴 생각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전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들의 행동을 봤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다고 한다. 책 안에서 많은 인물의 사고방식을 배우며, 자신의 사고 폭을 넓힌 것이 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이어졌다.

## 아이의 독서 흥미를 일깨우는 방법은 환경 노출

“독서 환경 노출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스마트폰 세대’ 또는 ‘영상 세대’로 불릴 만큼 아이들은 활자나 글로 된 책보다는 전자기기나 유튜브 영상에 관심이 많다. 아이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알려주기 힘든 세상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독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방법을 묻자, ‘새벽독토’의 회원들은 공통적으로 독서 환경 노출을 꼽았다. 한 회원은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같이 읽는다고 했다. 또 다른 특별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회원은 피치 못할 사정

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자 강연에 아이를 데려간 적이 있다고 한다. 우주를 주제로 한 어려운 강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강연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직접 질문하여 답을 찾으려고 했다. 또한 어른들이 당연하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아이만의 시선으로 보며 질문할 거리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해 독서를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지 책을 많이 읽는 것만이 아닌, 책에 관련된 경험에 지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모임으로 시작한 ‘새벽독토’는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며 엄마도, 아이도 한층 성장했다. 오늘도 그들은 모두가 잠든 새벽, 독서 토론을 위해 짜릿한 탈출을 하고 있다.

## 자발적인 강제 독서 강독

청년취재단 · 배달의독서(김민지, 박아현)



모이는 곳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모이는 사람들

워킹맘

추천도서

- EBS 다크프라임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지음, 가나출판사 펴냄)
- 1984 (조지 오웰 지음, 민음사 펴냄)
-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지음, 열린책들 펴냄)
- 뽕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 지음, 아르테(arte) 펴냄)
- 책은 도끼다 (박웅현 지음, 북하우스 펴냄)

바쁜 현대사회에서 책을 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 집안일을 하는 중 시간을 내어 책 읽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 하늘의 별을 따버린 독서동아리가 있다.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토요일 오전, 창문을 넘어온 따뜻한 햇볕 사이로 아이들의 그림책 읽는 모습과 열띤 독서 토론을 펼치는 엄마들이 있다. 토요일 아침을 책과 함께 여는 자발적인 강제 독서모임 ‘강독’을 만났다.

### 워킹맘들의 워라밸은 독서

“‘강독’은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독서동아리 ‘강독’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한 회원은 이처럼 답했다. ‘강독’ 회원들은 독서를 좋아하지만,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로 시간과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혼자 책을 읽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책 읽는 시간을 강제로 지정하지 않으면, 책 대신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읽어보자는 취지로 현재 ‘강독’의 대표가 인터넷 카페에 공고를 올려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원들은 ‘강독’ 활동을 통해 즐겁게 책을 읽고 있다. 평일에는 연락하지 않고 오직 주말에만 만나기 때문에 책과 일상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도 맞출 수 있다.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고민도 나누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 책이라는 친구와 교류하는 방법, 기록하고 정리하자

“독서는 운동이에요. 자신에게 좋다는 건 알지만, 처음에는 시작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다 보면 운동도 중독된다고 하듯이 독서도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계속하게 돼요. 정신적 기초 체력이나 근력을 독서를 통해

만들어요.”

독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회원들은 독서모임으로 바뀐 변화를 즐겁게 이야기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변화는 독서를 통해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 점이다. 한 회원은 독서동아리 활동으로 많은 책을 읽고 후에 그 책을 되돌아볼 때 기억나지 않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독서 책’을 구매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한 것 위주로 적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책을 한 번 볼 때 세 번 본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또 다른 회원이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다. 그녀는 책에 대한 결벽이 있어 절대로 필기나 구김 없이 책을 읽었지만, 독서동아리 활동 후 책에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포스트잇을 붙이며 한 권이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기록하는 습관을 길렀다고 한다. 자신의 독서 방식대로 책을 읽으면, 배움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추천했다. 책은 맞춤형 친구들로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강독’ 회원들의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은, 책이란 친구와 교류하는 그들의 방식이었다.

###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다

‘강독’ 회원들은 독서모임을 통해 스스로 변하고, 깨달은 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예쁜 마음이 모여 자녀들의 독서동아리가 탄생했다. 자녀들의 독서동아리가 ‘강독’과 함께하는 건 아니다. 나이대별로 나눈 독서동아리마다 감독 선생님이 와서 적절한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독서 활동을 펼친다. 어린이 감독 선생님은 오전 9시 30분에 구연동화를 하고, 청소년 감독 선생님은 오전 9시에 독서 토론을 시작한다. 최근 청소년 독서동아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쓰인 정약용의 『목민심서』로 독서 토론과 워크북 활동을 한다. 이러한 독서 활동이 아이들에게도 변화를 주었다고 묻자, ‘강독’ 회원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녀들의 핸드폰 시간이 줄고, 좋은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이다.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독서 토론 활동 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해 답답해한다고 한다. 이 답답함이 말하는 자유를 지킬 책임으로 다가왔다. ‘강독’은 부모에게 온 변화의 물결을 아이들에게 넘겨주어, 책이 주는 즐거움을 아이들도 알게 해주었다. ‘강독’ 회원들은 배우자가 책 읽는 모임을 개설하는 것이 그다음 변화라며, 당당히 가족 전체가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으로 누가 ‘강독’의 변화를 이어받을지 무척 기대된다.

정신없이 바쁘게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위라벨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요즘, 워킹맘으로서 위라벨을 찾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기 강제로 독서하기를 계기로 자신들만의 강렬한 독행을 펼치는 ‘강독’ 워킹맘 회원들의 행보는 어떤 사람에게도 견줄 수 없을 것이다.



## 함께 낭독하며 성장의 여정을 떠나다

### 낭랑공독

청년취재단 · 육소연



모이는 곳

용인시 여성회관

모이는 사람들

수지플로어 독서동아리를 함께했던 회원, 회원들의 지인

추천도서

- 알기 쉽게 풀어 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지음, 아름다운날 펴냄)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퀴디데스 지음, 숲 펴냄)
- 오이디푸스 왕 (소포클레스 지음, 민음사 펴냄)
- 안티고네 (소포클레스 지음, 범우사 펴냄)

‘옛 서적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며, 완전히 낯선 외국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런 뒤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현대의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선명히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현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신의 저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통해 한 이야기다. 니체는 옛 서적을 읽음으로써 현재를 투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렇듯 고전은 선조들의 지혜와 사유 방식을 담고 있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삶의 자양분이 되어준다. 고전을 통해 성장의 여정을 떠나고자 하는 독서동아리가 있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카페 그린나래에서 고전 낭독 동아리 ‘낭랑공독’을 만났다.

#### 함께 읽고 나누는 즐거움

‘낭랑공독’은 2017년 낭독에 관한 책을 읽은 간현진 대표가 독서동아리 ‘수지플로어’를 함께한 미란 회원에게 고전을 낭독하자고 권유하면서 시작되었다. 오래전부터 고전을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혼자 읽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함께 읽자고 선뜻 이야기하기도 어려워 미뤘왔다고 한다. 하지만 미란 회원이 흔쾌히 함께 읽겠다고 하면서 단 2명이 각자의 집을 오가며 고전 독서를 시작했다. 현재는 수지플로어의 회원 일부와 지인들이 더해져 10명 안팎의 엄마들이 함께 고전을 낭독하고 있다.

‘낭랑공독’은 역사 발전 과정을 따라 그리스 고전을 낭독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3년간 꾸준히 함께 읽어온 만큼 이들이 쌓아온 자양분은 깊고 단단하다. 한 회원은 “처음에는 낭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지금은 배경지식이 많아져 이야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그간의 변화를 상기했다. 이어서 한 회원은 “고전을 읽으



면서 폭넓은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초창기에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좁은 관점과 비교 돼요”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읽은 책과 더불어 지적인 성장에 발판을 달아준 것은 학문에 대한 회원들의 순수한 열정이다. 한 회원은 “사람들이 학구열이 뛰어나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미리 조사해 와요, 관련 연표부터 고지도, 인물 관계도까지 다양한 사진 자료를 준비해요”라고 말하며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회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한 회원은 “옛 고전을 읽으면서 현재 문제와 연결해 설명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모임에서 다뤘던 내용을 요약해 카페에 올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덧붙였다.

‘낭랑공독’ 회원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다. 작은 가르침에 감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즐거움을 맛본다. ‘낭랑공독’의 가장 큰 수혜자라 자칭하는 한 회원은 “저는 지도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 지도를 가지고 소통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전을 함께 읽으면서 지도가 쓰임을 찾게 되었고, 지도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낭랑공독’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회원들 각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 낭독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

낭독을 하다 보면 눈으로만 읽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글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마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조곤조곤 들려주는 희망과 격려, 그 속에 녹아든 감동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에 깊이 다가갈 수 있다. 한 회원은 “혼자 읽어야 했다면 힘들었을 텐데 함께 읽기 때문에 꾸준히 읽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아요”라고 말했다.

올해 ‘낭랑공독’에게 낭독 외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한다. 그것은 연극이나 낭독극을 보는 것이다. 회원들은 톨스토이의 『이반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함께 연극 〈킬 미 나우〉를 관람하기도 했다. 그리스 미술사를 읽은 회원들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그리스 보물 전〉에 다녀오기도 했다. ‘낭랑공독’의 회원들은 고전과 관련된 문화 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는 회원들과 함께 직접 로마, 그리스를 투어하며 배움의 여정을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간현진 대표는 독서동아리 지원금으로 회원들과 풍성한 문화 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 고전,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

간현진 대표는 ‘낭랑공독’의 내년 목표로 낭독극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연습 시간, 장소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낭랑공독’의 진행 상황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이들에게도 고전의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어 낭독극을 준비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 독서동아리 경기권 워크숍을 방문한 간현진 대표는 회원들과 글쓰기를 보장하는 것도 2020년의 새로운 목표라고 한다.

“저는 낭독이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절박할 때가 있거든요. 절박할 때 저를 채워주는 것이 낭독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말미에 한 회원이 말했다. ‘낭랑공독’의 회원들에게 고전은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다. 경제적 가치, 물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철학과 문학은 살아 있는 한 지워질 수 없다는 점에서 단단하고 든직한 기둥이다. 이들은 단단한 기둥과 넓게 뻗은 뿌리를 자양분 삼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넓고 곧게 뻗은 뿌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길 기대해본다.

## 안산의 아침을 독서로 깨우다

### 안산 독서 포럼

청년취재단 · 김규리



#### 모이는 곳

안산시 사동 대동서적 세미나실

#### 모이는 사람들

20~70대 학생, 주부, 직장인 등

#### 추천도서

· 흑산 (김훈 지음, 학교재 펴냄)

· 담론 (신영복 지음, 돌베개 펴냄)

·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정민 지음, 김영사 펴냄)

· 다윈 지능 (최재천 지음, 사이언스북스 펴냄)

· 사고의 본질 (더글라스 호프스태터, 에마누엘 상데 지음, 아르테(arte) 펴냄)

아침 해가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6시 50분, ‘안산 독서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안산시 사동을 찾아갔다. 아직은 차도 사람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는지 주변이 무척이나 조용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다. 아무도 들이마시지 않은 것만 같은 상쾌한 공기가 거리에 가득했다. 이토록 이른 시간에 독서모임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한적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바깥 풍경과는 달리, 독서모임을 위해 사동의 대동서적 세미나실을 찾은 인원은 상당했다. 2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이 이번 주 선정 도서인 『채식주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 두고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 안산의 아침을 독서로 깨우다

주말 아침부터 집 밖으로 나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 쌓인 피로를 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안산 독서 포럼’ 회원들에게 이토록 이른 시간에 모이는 이유를 물었다.

“초창기에는 더 늦게 모인 적도 있었는데, 굳이 다른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적인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7시에서 9시더라고요.”

“7시에 와서 독서모임을 해보니까 하루가 이틀 같아요. 토요일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모임이 끝나도 아침에 일어날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안산 독서 포럼’은 직장인이 주를 이루는 모임이니만큼 모두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오전 7시를 택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벽 기도 가는 기분으로 와요”라는 어느 회원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른 시간에 모임을 찾는 이유는 결국 조금의 수고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람과 에너지를 얻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 함께 읽으며 함께 성장하다

안산 시민이라면 ‘대동서적’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안산의 대표적인 대형 서점 대동서적이 바로 ‘안산 독서 포럼’의 시발점이다. 2012년, 대동서적 최창규 대표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시작한 독서모임이 지금의 ‘안산 독서 포럼’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서점 대표와 직원들이 주로 참여했으나, 모임이 확장되면서 지금은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안산 외 지역에서 찾아오는 회원들도 생겼다.

‘안산 독서 포럼’은 상당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해 동안 읽을 책을 선정한 뒤 발제자를 정하면, 발제자가 중요한 논제들을 이삼일 전에 네이버 밴드에 올린다. 독서모임이 시작되면 발제자가 약 20분 정도 작품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한다. 발제가 끝나면 7~8명이 한 팀으로 나뉘고, 준비된 논제를 중심으로 팀의 리더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소설의 핵심 내용과 함께 소설에 적용할 수 있는 철학 이론들을 알 수 있었다. 발제가 끝난 뒤 세 팀으로 나뉘어 준비된 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품을 읽은 소감과 공유하고 싶은 문장 등 작품 전반에 관한 논의부터, 등장인물 ‘영혜’가 고수하는 ‘노브라’에 대해 요즘의 우리 사회와 각자의 견해를 알아보는 등 폭넓은 주제로 함께 읽기가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진행을 계속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독서 포럼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깊게 공부할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했어요.”

“저희는 연구를 통해 모임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요. 여기에는 전문가도 몇 분 계시고 책을 잘 읽는 분들도 계셔서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을 잘 찾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안산 독서 포럼’이 가진 함께 읽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회 공헌 차원에서 시작된 독서동아리인 만큼, 동아리의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고민은 끝이 없다. 일일 회원으로 ‘안산 독서 포럼’에 참여하면서, 그 고민이 ‘안산 독서 포럼’을 더욱 깊이 있는 독서동아리로 만드는 원동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회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안산 독서 포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다. 회원 한 사람이 독서 토론 지도자 과정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가끔은 외부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열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문학 답사와 송년회, 선정 도서 외에 관심 있는 도서가 생기면 주중에 모이는 ‘독서 번개팅’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 회원은 모임에서 『동의보감』을 읽고 다산 생가로 봄 소풍을 갔던 일을 회상하며, “소풍을 통해 작품이 내면화가 되어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전했다.

### 책 읽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다

“학창시절을 지나면 다양한 배경과 삶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데, 바깥에서 만나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몇이에요, 집이 어디예요’ 같은.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경계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로 정리해야 말이 나오는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이런 독서모임에서 책을 매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 생각과 고민, 주변의 일들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의 삶을 좀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평소 타인과 함께 삶과 고민에 대해 깊이 대화할 시간을 갖기란 쉽지 않다. 특히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야깃거리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책이 매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의 삶과 생각을 공유한다. 이것이 바로 독서동아리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산 사회를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산 독서 포럼’은 함께 읽고 토의하는 문화를 통해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하늘을 서서히 밝혀가는 오전 7시의 태양처럼, ‘안산 독서 포럼’은 앞으로도 안산시의 책 읽는 문화를 환하게 밝혀나갈 것이다.

## 19

# 서로만의 공간에서 책과 커피와 함께 서로

청년취재단 · 와이파이(이서연, 최현지)



모이는 곳

서로1010 카페

모이는 사람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주민들

추천도서

· 문명, 그 길을 묻다 (안희경 지음, 이야기가있는집 펴냄)

· 세 여자 (조선희 지음, 한겨레출판사 펴냄)

· 10대와 통하는 탈핵 이야기 (최열, 김익중, 이원영, 한홍구, 우석균, 강양구,

소복이 지음, 철수와영희 펴냄)

·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미셸 루트벤스타인 지음, 에코의서재 펴냄)

·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지음, 민음사 펴냄)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작고 낡은 상가 2층에는 결코 다른 아늑한 공간이 존재한다. 바로 '서로' 독서모임이 이루어지는 '서로1010' 카페다. 삭막했던 상가의 공기는 그들이 모이는 시간이면 밝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바뀐다. 독서모임을 하는 내내 그들의 밝고 호탕한 웃음소리는 상가를 가득 채웠다.

독서모임 '서로'는 10년의 시간을 함께한 장수 독서모임이다. 그런 만큼 회원들은 여느 독서모임보다 깊은 유대감을 자랑했다. 그들은 새로운 회원들도 환영하고 있다. 회원들만의 독서모임에서 나아가 모든 사람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고, 마음에 쌓인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목요일 오후 서로1010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독서의 꽃을 피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들, 독서모임 '서로'의 회원들이다.

###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지해 온 장수 독서모임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독서모임을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10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었고,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다. 회원들 모두 입을 모아 외쳤다.

“회장님 덕분이죠!”

호탕한 웃음과 박수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긴 시간 동안 독서모임을 이끌어온 회장님 덕분에 10년 장수 독서모임이라는 타이틀과 2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다.

“지금 20명 정도의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회원이 2명 또는 회장님 혼자만 출석하는 날도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만뒀

을 텐데, 중간에 접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오신 회장님이 정말 대단해요.”

### 마음의 안식처, 서로1010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힘들었던 점이나 사건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오래 '서로'와 함께한 회장님께 질문했다.

“그럼요. 혼자일 때.”

초창기에는 출석하는 회원이 2명 또는 회장님 혼자인 시절이 있었다고 했다. 회장님의 재치 있는 농담에 회원들의 호탕한 웃음이 또 한 번 공간을 채웠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활동했어요. 하지만 자리가 없을 때는 활동하기 어려웠어요. 저희가 카페 서로1010 공간을 갖게 된 이유도 저희끼리 모이는 공간에 대한 필요가 느껴져서였어요.”

'서로' 회원들에게 10년 만에 그들의 공간을 만든 것은 동아리 활동 중 가장 특별한 기억이다. 회원들은 서로1010 카페가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 받고, 쉬거나 놀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앞으로 카페 서로1010은 서로 독서모임이 활동할 소중한 공간이다. 특별한 장소를 마련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회원들 간의 유대감도 높다. 시간이 되는 사람이 와서 커피를 볶고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유대감과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서로1010을 만들고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함께하는 공간에서 '서로' 회원들의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느껴졌다.



## 독서를 통한 믿음과 유대감으로 마음의 성장을 일구다

회원들이 들어온 시기는 모두 다르다. 활동한 지 10년 된 사람부터 아직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사람까지 다양하다. 물론 연령도 30대부터 60대까지, 그리고 성별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독서모임 서로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았을까.

“다양한 의견을 말할 때 이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혹여나 실수할까 걱정도 되고, 상대를 살펴야 하지만 이곳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리다’라고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곳이 타향이기에 친구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과 만나면 아이 이야기, 산 이야기 같은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졌죠. 그러다 서로에 왔을 때 정말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며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공유해 너무 좋았어요. 제 생각의 폭이 작았다면 활동하면서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성장.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오시면 좋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공감했다. 취재하러 온 우리도 공감할 수 있었다. ‘서로’의 활동을 경험한다면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회원들이 바라는 모임은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 ‘서로’에 대한 소통, 믿음, 성장, 편안함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까지 ‘서로’의 강점이자 매력이다. 장수 독서모임 ‘서로’에 배울 점은 정말 많았다. 그들에게 후배나 신생 독서모임에 해주고 싶은 조언을 구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책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자주 만나세요. 책을 읽지 않았어도 모임에 참석해 자주 만나고, 소통하세요.”

## 일상을 함께하다

‘서로’ 독서모임은 가입 제한이 없다. 약간의 용기만 가지고 오면 된다. 회원들의 나이대도 30대부터 60대까지 폭이 넓기 때문에 나이 제한도 없다. ‘서로’ 회원들은 자유롭게 토론하고 느낀 점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한다. 책을 읽지 않고 모임에 와서 이야기해도 모두 잘 들어주는 분위기이니 책을 읽는 게 힘들더라도 일단 나와서 함께하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함께하는 시간이 정을 쌓고 즐거움을 만들어준다.

신생 독서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들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긴 세월을 함께한 기존 회원들 사이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이다. 하지만 독서모임 ‘서로’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독서모임뿐만 아니라 회화반, 우쿨렐레반, 사진반 등 독서모임에서 파생된 많은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기에 새로운 회원들이 ‘서로’와 함께 활동한다면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공감도, 이해관계도 책을 통해 치유된다. 책은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대화를 풍성하게 해준다. 책을 읽음으로써 넓은 생각을 갖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회원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면 보다 활발하게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한다.

카페 서로1010에서 ‘서로’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모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원두 향기도 빠지지 않고 독서에 즐거움을 더했다. 소통이 사라진 요즘 시대에 가족처럼, 친한 친구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되는 ‘서로’ 독서모임은 쉬어가는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해도 모임에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서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독서모임이다.

## 빨간 약을 선택한 사람들의 독서모임

### 빨간약독서회

청년취재단 · 구민정



모이는 곳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카페

모이는 사람들

20~30대 여성 직장인

추천도서

- 빨래하는 페미니즘 (스테퍼니 스탈 지음, 민음사 펴냄)
-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황선우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 엄마는 페미니스트 (치마만다 은고지 아다치에 지음, 민음사 펴냄)
-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지즈코 지음, 은행나무 펴냄)
-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김진아 지음, 바다출판사 펴냄)

‘빨간약독서회’는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약’처럼 아프지만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의 페미니즘 독서모임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페미니스트로서 공감하고 배우며 성장해나가고 있는 ‘빨간약독서회’를 만나보았다.

#### 감자, 보리, 라니, 위즈, 톰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적한 카페 ‘스몰해빗’이 생기를 찾는 시간이다. 이날의 토론 도서인 김진아 작가의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를 손에 쥔 회원들이 하나둘 카페에 들어서자, 조용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활기를 띈다. 책과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모락모락 피어난다.

“이게 얼마 만이야, 감자!”

“라니, 잘 지냈어요?”

회원들은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서로를 부른다. 감자, 보리, 라니, 위즈, 톰. 저마다 개성 넘치는 별명을 지닌 이들 5명은 모두 결혼하지 않은 이삼십 대 여성 직장인이다. 작년 겨울, 직장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함께 책을 읽으며 가까워졌다. ‘빨간약독서회’의 창설 시기가 이들의 입사 시기와 맞닿아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매달 두 차례의 모임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현재는 회원 수도 8명으로 늘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났기에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수월했고, 이는 꾸준히 모임을 이어오는 비결이 되었다.

#### 페미니즘을 외면할 수 없었다

‘빨간약독서회’의 결성을 주도한 ‘톰’은 페미니즘에 관한 독서모임을 운

영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 책을 매개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갈증이 컸던 틈은 그녀의 소망이 현실이 된 지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껏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매순간 느낀 불편한 감정들을 홀로 껴안으며 끙끙 앓던 ‘보리’에게 이곳 ‘빨간약독서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가 되었다. ‘위즈’ 역시 회원들을 만나기 이전에는 살면서 느낀 불편한 감정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 스스로 알고 행동하는 것과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지니는지 깨닫게 되었다. 모임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회원은 ‘감자’다.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뒤바꿔놓았고, 이는 그녀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혼자서는 책을 읽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읽어나갈 사람이 필요했다는 ‘라니’는 모임에서 회원들과 함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해방되는 기분을 느낀다. 그녀에게 ‘빨간약독서회’는 소통의 공간이자, 위로의 공간이다.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겪은 가장 큰 변화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점차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페미니즘을 외면할 수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 모두가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

회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모임에서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추천받은 도서 목록을 쭉 정리한 뒤에 구체적인 독서 계획을 세운다. 책을 선정하는 방식에도 회원들 모두의 취향을 고려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

모임 당일에는 그날의 진행자가 토론 도서를 바탕으로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다양한 질문을 생각해온다. 발언 순서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모두가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 바쁘다.

이들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자 강연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디의 우산』의 황정은 작가, 전주독서대전에서 열린 이슬아 작가의 강연에도 회원들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

###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페미니즘 독서모임이 되고 싶다

‘빨간약독서회’의 목표는 확고하다.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페미니즘 독서모임이 되는 것. 그리하여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페미니즘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는 것이 회원들의 궁극적인 목표다. 잃어버린 파이를 되찾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고군분투하는 일터의 여성들 모두에게, ‘빨간약독서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아직까지 페미니즘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것에 무뎌지고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 책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여정

### 잉클링스

청년취재단 · 강주희



모이는 곳

경남 창원시 성산구 모모 상남점

모이는 사람들

창원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들

추천도서

· 담론 (신영복 지음, 돌베개 펴냄)

· 코스모스 (칼 세이건 지음, 사이언스북스 펴냄)

·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 을유문화사 펴냄)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지음, 김영사 펴냄)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지음, 민음사 펴냄)

방 안 가득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린다. 모두 귀 기울여 들려오는 대목을 책에서 짚어본다. 차례로 돌아가며 니체의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던 중,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듯한 문장이 들린다. “신은 죽었다” 회원들은 곧바로 “이 구절이 이렇게 탄생한 말이었구나”하며 탄성을 자아냈다. 창원에서 모임을 꾸려가고 있는 ‘잉클링스’는 2017년 시즌 1을 시작으로 어느덧 시즌 5를 맞이했다.

2017년 창원 지역 기혼 여성 커뮤니티인 ‘쭈마렐라’에 책모임 회원모집 글을 통해, 독서와 자신의 이야기에 걸증을 갖고 있던 주부들이 모이게 됐다. 원래 잉클링스(Inklings)는 1930년에 C.S.루이스와 워렌 루이스 등 작가들이 집필 중인 작품을 서로 읽고 토론하거나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었다. ‘모호하고 완성되지 않은 암시와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그 의미와 취지를 본받아 ‘잉클링스’로 모임 명을 정하게 됐다.

#### 단편단편 세상살이, 책과 함께 하다

‘잉클링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임을 한다. 초기에는 격주로 모였으나, 인원이 적어서 유지가 어려웠다. 그래서 시즌 3부터는 매주 모이게 됐다. 공통책을 기한 안에 읽어야 한다는 것과 매주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완독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책 수다 시간에 집중하게 되면서 ‘빨리, 많이 읽자’란 마음을 내려놓게 됐다. 또한 자신이 가능한 만큼만 읽어와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덜게 됐다.

‘잉클링스’는 소리내 읽는 낭독책, 회원들이 읽고 싶은 책인 자유책, 혼자 읽기 버거워 같이 읽으면 좋은 공통책. 이렇게 세 종류의 책을 선정하여 시즌 내에 읽는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분야별로 회원들이 읽고 싶은

책 리스트를 미리 정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읽을 책들을 고른다. 시즌별로 미리 읽을 책을 선정하면 기한에 상관없이 미리 읽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전 같은 어려운 책이라도 완독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해당 책을 고른 사람은 진행자가 되어 발제를 준비한다. 발제는 ‘질문 만들기’다. 책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점들을 찾아서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발제를 쫓아 책을 읽다 보면 깊이 있는 독서는 물론 토론의 갈피를 잡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모임 구성 또한 회원들의 솔한 고민과 조율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서로 의견을 공유해가며 더 좋은 독서모임을 위해 노력했다. 독서모임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서 발제 및 한줄평 남기기를 시작하며 SNS를 통해서 모임에서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고 모임 후기를 공유했다. 그렇게 경험치와 기록이 쌓여가면서 시즌 4부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시즌 5에서는 시즌 4보다 공통책이 다섯 권 더 늘었다. 함께 읽고 싶은 책이 늘어난 만큼 책을 보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이다.

### 살아 숨 쉬는 모임에서 찾은 살아 숨 쉬는 인생

회원들은 20대엔 읽기 쉬운 가벼운 책을 즐겼지만 모임을 시작한 뒤로는 고전을 읽으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처음엔 고전을 읽는 것에 주저했지만, 막상 읽어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읽고 싶은, 읽어야 할 책은 산더미인데 고전 같은 경우 세월을 거쳐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읽기엔 안성맞춤이었다. 회원들은 고전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인생사는 다들 비슷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현실을 마주하는 힘을 얻게 된다고, 결국 고전이 ‘책 읽는 힘’을 길러준다고 말했다. 덧붙여 고전이 끝까지 재미없는 것은 아니라며 50쪽만 넘겨도 흥미진진해지니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일렀다.

낭독책은 시즌 3에서 『논어』를 읽으면서부터 시작됐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논어를 다 같이 낭독하여 1년에 걸쳐 읽었다. 소리 내 읽으니 귀

에 쑥쑥 박히고 천천히 읽어나가기에도 좋았다. 지금은 동양의 고전을 끝내고 서양의 대표적인 고전에 도전 중이다. 이렇듯 회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 읽기에 그치지 않고 필독서들을 두루 나눠 읽으면서 무한한 독서의 세계에서 유영 중이다.

‘잉클링스’는 대부분 타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됐다. 그래서 모임을 통해 자연스레 이곳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잊고 살았던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고민하던 자리에 나 자신을 위한 자리도 함께 내어준 것이다. 또한 육아를 시작하면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모임을 통해 내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해지면서, 책을 매개로 무한한 소재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시각을 접하다 보니 생각의 빈틈을 채우고 좁았던 시야를 확장하는 힘을 얻었다.



## 2부

# 독서동아리가 펼치다



## 글 빛는 고을 청주, 신명 나는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으로

청년취재단·강주희

지난 8월 31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2019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독서동아리들이 모여 사례를 발표했다. 1부 독서동아리 사례발표 및 강연에서는 총 7개 팀이 참가했다. 한마당은 전국에서 독서동아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읽기'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독서동아리가 직접 무대에 서서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소장과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이들은 강연에서 독서동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원근 소장은 "독서는 지식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며 "책을 많이 읽는 양적 독서보다 책으로 마음을 나누는 함께하는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혜자 관장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 독서 생태계에 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독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민경 씨는 "사례공유 워크숍을 통해 공동체 독서의 힘을 얻고 간다"며 "내년에도 지역의 문화적 역량이 한데 모인 독서동아리 한마당이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같이의 가치를 전하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은,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에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어느 책 구절에 울렁이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만 이런 감정을 느낀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책 한 권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운다. 하지만 혼자서 맘속에 가득 품고 있는 건 때때로 독이 될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자. 당신과 그 '책'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눌 마음들이 거기 있다.

참여 독서동아리 : 콩세알(서산), 생각&채움(고흥), 해결(진주), 짜릿한 탈출 새벽독토(대전), 3515 책수다(청주), Art인문학여행자들(용인), 봄날의 꿈(과천)

서산에서 온 ‘콩세알’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어린이책 환경을 바르게 가꾸는 비영리 모임이다. 어린이들 누구나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강요와 평가에 의한 책 읽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꿈꿀 수 있는 책 읽기 사회를 이야기하며 동아리 목표에 대해 알렸다. 이어 고흥의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생각&채움’은 동아리만의 독서 토론 방식과 회원들의 독서 방법을 소개했다. 이들은 농촌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삶의 허기를 달래며 교류의 장을 만들어어나가고 있다. 진주 경상대 독서동아리 ‘해결’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다루는 사회 관련 책을 읽는다. 해결 독서동아리 대표는 “책을 읽고 토론하며 사회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하며 공론장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대전에서 온 ‘짜릿한 탈출 새벽독토’는 말 그대로 토요일 새벽 6시에 이른 모임을 해 관객들의 놀라움을 자아낸 동아리다. 주부로 구성된 회원들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을 이용해 일명 짜릿한 탈출을 감행한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톨아보기를 진행하며 새벽이 주는 매력을 전했다. ‘3515책수다’ 청주 진흥초 학부모 독서동아리로 15명의 회원이 책으로 소통하기 위해 모였다. 독서 토론회, 문학 탐방 등 다양한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풍부한 독서 활동을 보였다. 용인에서 온 ‘Art인문학여행자들’과 과천에서 온 ‘봄날의 꿈’ 또한 문학 나들이, 공연과 전시 관람 및 책을 통한 활동적인 운영 방식과 꾸준한 책 읽기에 대해 발표했다.

### 독서동아리 고민 타파로 다 같이 으쌰으쌰

2부에서는 현장에 온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독서동아리 톡투유’가 진행됐다. 독서동아리들의 고민을 듣고 집단지성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본격적으로 2부가 진행되기 전, OX 퀴즈 게임을 통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사람들 모두 도화지에 ‘독서는 ○○이다’라는 문장에 들어갈 ○○을 채워나갔다. 저마다 가지각색의 답변을

보였다. 그중 ‘독서는 질책이다’라고 답한 참가자는 “책을 읽는 목적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질책 같다”며 “독서를 통해 더 즐거운 삶을 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톡투유’에서는 미리 독서동아리 사람들의 사연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눴다. △바쁜 일상 속 독서법 △신입회원과 기존회원의 융합 △모임이 활발하게 유지되는 법 등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뤘다. 이에 길잡이 선생님을 비롯해 고민을 덜어줄 사람들의 사례공유가 이어졌다. 끝으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이경근 총괄실장은 “누가 더 많이 읽는지 책을 통해 누가 더 똑똑해지는지, 독서는 경쟁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많이 읽는 것보다 다 같이 함께 책 읽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전국의 독서동아리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청년취재단·김규리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8월 30일 청주에서 개최되었다. 청주 예술의 전당과 고인쇄박물관 부근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100여 개의 출판 부스, 60여 개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축하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독서대전 둘째 날,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2019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이 열렸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날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에서는 1부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독서동아리 7개팀의 사례 발표와 독서동아리 10분 강연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 독서동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독서동아리를 통해 소통의 힘을 느껴보길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소장이 독서동아리 10분 강연으로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 1부의 막을 올렸다. 백 소장은 직장을 다니던 시절, 근처 회사와 연합 독서동아리 활동을 함께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함께 읽기가 업무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독서동아리를 통해 독서를 습관화하고, 이 활동이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에 스며들어 책으로 마음을 나누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우리 독서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백 소장의 10분 강연 이후 약 70분간 독서동아리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과천, 서산, 고흥, 청주, 진주, 용인, 대전에서 모인 독서동아리 7개 팀의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독서동아리 소개와 활동 사례,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소개된 독서동아리는 과천 ‘봄날의 꿈’이었다. 모임 초반에 발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봄날의 꿈 회원들은 자기 생각만을 말하던 처음의 방식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발제 형식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로써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지용 문학관 방문, 통영 박경리 기행, 로알드 달 『목사의 기쁨』 낭독극, 문집 만들기 등 독서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음을 밝혔다.

두 번째 독서동아리는 엄마들이 모여 약 11년째 어린이책을 읽는 서산의 ‘콩세알’이었다. 놀이터나 보육원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진행하며 ‘평등한 책 읽기, 자유로운 책 읽기, 꿈꾸는 책 읽기’라는 모토를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책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자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세 번째 독서동아리는 고흥의 ‘생각&채움’이었다. 50대 후반에서 70대 회원들로 구성된 생각&채움은 도서관 인문학 강좌에서 알게 된 귀농인들이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우스에서 일하다가도 책 읽는 시간이 그리워 땀을 흘린 채로 모임에 온다는 회원들은 독서동아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네 번째 독서동아리는 청주의 ‘3515 책수다’였다. 진흥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동아리 3515 책수다는 ‘재미난 독서, 꾸준한 독서, 나누는 독서’를 실천하자는 뜻을 가지고 약 4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회원들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여 책을 통한 성장을 도모해 왔다. 그 예로 ‘월별 전 학년 추천도서 제작, 독서 토론회, 가족과 함께하는 문학기행, 한지 탈색 북 바인딩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소개되었다.

다섯 번째 독서동아리는 진주의 ‘해결’이었다. 해결은 진주 경상대의 독서동아리로 젠더 이슈, 임금 노동 문제 등을 토론하며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정독과 다독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해결은 더 나은 독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토론, 설득의 기술』을 정독하고 있다. 이후에는 저자 강연회와 활동집 발간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하며,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여섯 번째 동아리는 용인의 ‘Art인문학여행자들’이었다. 정독을 추구한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3권을 읽으며 끝까지 과고들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회원들은 인문학이라는 한 배를 탔다는 생각으로 모여 인문학, 특히 미술 쪽을 탐구한다. 또한 ‘배워서 남 주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곱 번째 독서동아리는 대전의 ‘짜릿한 탈출 새벽독토’(이하 짜새)였다. ‘짜새’의 모임 시간은 토요일 오전 6시 30분이다. 이를 들은 관객들이 ‘우와’ 하는 감탄사를 내뱉자, 워킹맘도 모일 수 있도록 아침 일찍 모인다고 ‘짜새’는 설명했다. 워킹맘뿐만 아니라 육아로 인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는 엄마들도 ‘짜새’를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아빠들에게 조기축구가 있다면 엄마들에겐 새벽독토가 있다”는 회원의 말에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 지역의 독서 생태계 함께 살려야

독서동아리 소개에 이어 진행된 독서동아리 10분 강연에서는 초롱이네 도서관 오혜자 관장이 지역 독서 생태계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

다. 이어서 서점이 도시에 몰리고, 지역 출판물들이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향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청주시 동네 서점 살리기 캠페인 ‘상생충북(BOOK) 운동’을 소개했다. 오 관장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 작은 서점과 도서관이 지역 출판물을 전시하고,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상화하여 책을 통한 지역 사회의 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전했다.

### 독서동아리의 고민, 함께 나눠요

2부 ‘독서동아리 토크유’에서는 간단한 ‘OX 퀴즈’와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독서동아리를 진행하며 겪는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독서동아리 고민 타파’가 진행되었다.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의견이나 성향에 모임의 깊이가 좌우되는데, 회원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에 대해 관객석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들을 수 있었다. 한 관객은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오프라인 활동이 중심이라면 온라인 활동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모임의 정체성이 독서모임인지 친목 활동인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면서, 과도한 친목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오픈 채팅으로 소통하여 사적인 연락 방지하기, 개인정보를 묻지 않음으로써 외부의 권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등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 건강한 독서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

행사가 막을 내린 뒤 관객석의 참여자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용인에서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한 참여자는 “다양한 독서동아리들의 사례 발표가 흥미로웠다. 또 독서동아리 고민 타파 시간에 나왔던 고민을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도움이 되었



다”라고 전했다.

이번 2019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은 독서동아리 활동 사례 발표, 10분 강연, 독서 퀴즈와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건강한 독서동아리 활동으로 나아가는 장을 마련했다.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만나볼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에 더욱 건강한 함께 읽기 문화를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03

# 책 익는 마을의 구수한 이야기 마당

청년취재단·육소연

울긋불긋 익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소복이 쌓인 낙엽 위를 걷다 보니 어느새 기흥도서관에 도착했다. 이날은 경기권에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 회원들과 만나 그동안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날이었다. 경기권 독서동아리 회원들은 네이버 밴드 <책 익는 마을>을 통해 활동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어 서로에 대한 유종의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회원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어색함과 설렘이 공존했다.

## 제1부 : 경기 지역 독서동아리 소개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경기권역 워크숍’에는 ‘낭랑공독’, ‘KAMA’, ‘아트인문학’, ‘센북클럽’, ‘까치북클럽’, ‘불독’, ‘숲이랑 우리랑’, ‘여주 고전문학의 발견’까지 8개의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어색한 공기를 풀고자 독서동아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눈에 띄었던 동아리는 ‘여주 고전문학의 발견’으로 엄마와 아들이 함께 여주에서부터 먼 거리를 달려왔다고 말해 인상적이었다. 이외에도 공동육아를 하는 조합원이 만든 독서모임 ‘숲이랑 우리랑’, 아

파트 주민들이 만든 독서동아리 ‘센북클럽’, 3년째 고전을 낭독하고 있다는 ‘낭랑공독’까지 독서동아리의 형태는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 제2부 : 함께 읽어 좋았던 책

독서동아리 소개에 이어 2부에서는 독서동아리에서 다룬 책 중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미 길잡이가 준비해온 노란 포스트잇에 각자에게 의미 있는 책들을 적어넣었다. 고전, 철학부터 미술사, 그림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는 독서동아리들이 모인 만큼 여러 분야의 책들이 적혔다. 평소 읽지 않는 분야의 좋은 책들을 추천받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책들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즐겁다. 내가 가진 취향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감사함을 느낀다.

『일리아드』, 『그리스인 조르바』, 『인간 불평등 기원론』, 『나에게 쓰는 편지』 등 여러 도서가 적힌 포스트잇이 칠판에 붙여졌다. 보기 좋게 붙어 있는 노란 포스트잇 중 노을한 회원과 김상렬 회원 2명이 궁금한 책이 적힌 포스트잇을 골랐다. 노을한 회원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선택하며 “친구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이라고 말해 예전부터 궁금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적은 김의경 회원은 “이 책은 나에게 자화상 같은 책이다. 죄라고 규정되는 행동들을 할 때 죄책감을 받는데, 그러한 행동에 대한 고찰을 한 책이다”라고 말하며 책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다. 김상렬 회원은 “평소 잘 모르던 분야”라며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선택했다. 『서양미술사』는 미술사를 공부하는 아트인문학에서 다룬 책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만나며 관심 분야를 확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 제3부 : 독서동아리 운영 방식

마지막 3부는 워크숍에 참여한 독서동아리들의 운영 방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독서동아리마다 모임 횟수, 장소, 책을 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또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동아리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수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독서동아리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동아리의 모임 횟수, 책 선정 방법, 대표 선출, 노하우, 암묵적인 규칙 등을 이야기하면서 동아리의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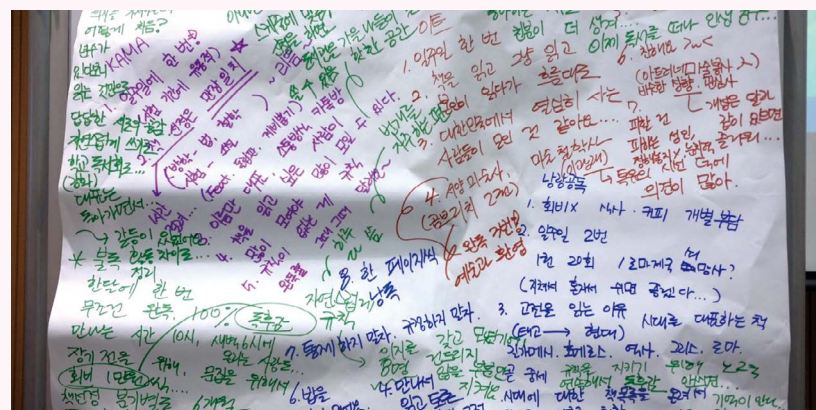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모임 주기는 다양했다. 짧게는 일주일에 두 번부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동아리도 있었다. ‘낭랑공독’은 일주일에 두 번 3년 동안 모여 함께 읽었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움을 표했다. 자주 모임을 하는 만큼 회원 간 결속력이 강해 보였다.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모이는 독서동아리의 경우 모임 주기가 길어 느슨해질 법하지만, 회원들의 책에 대한 열정과 회원 간의 신뢰도가 높아 꾸준히 함께 읽을 수 있는 원동

력이 되어주고 있었다. 책의 선정은 비교적 유동적이었다. 대표의 추천을 받는 동아리도 있고, 만장일치를 통해 책을 선정하는 동아리도 있었다. 1년간 읽을 책을 미리 선정해놓는 동아리도 있었는데, 책을 읽는 속도가 늦은 회원과 미리 책을 읽고 싶은 회원들을 배려해 책을 미리 선정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동아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이전에 모임을 구성한 회원이 대표를 맡는 경우,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마지막으로는 독서동아리 운영의 노하우에 대해 공유했다. 불독 회원은 “신뢰를 가진 사람들과 꾸준히 함께하는 것이 노하우”라고 말했다. 이어서 ‘KAMA’ 회원은 회원 간 일정, 시간 등을 최대한 배려하고, 회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독서동아리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지만, 공통으로 회원들의 책에 대한 열정과 신뢰가 독서동아리를 유지해온 원동력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며

이날의 일정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한 회원이 말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 정리되고, 치유된다는 말이 있다. 동아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다른 동아리를 통해 배우는 자리가 되었다.” 회원들은 자신이 속



한 독서동아리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자신이 즐겁게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면서 한 뼉 더 큰 세계로 발을 내딛었다. 또한 다른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활동하는 독서동아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동아리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 회원은 “오늘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 사람이라는 책,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어 즐거웠다”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 3부

한겨레 공동기획:  
우리 독서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군인들 호위하는 도서관에서

### 행복한 책 읽기

## 충북 청주시 '책이 꽃이라면'

대표 · 이하나



현역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하며 호위하는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웬만해선 믿기 어려울 것이다. 충청북도 청주의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그곳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관사인 성무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꽤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이 있다는 건 거의 비밀에 가깝다. 이 성무책마루작은도서관(관장 윤미애) 안에서 우리는 ‘은밀하게’ 독서 토론을 한다. 물론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2016년 도서관이 문을 열자마자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다

양한 프로그램도 하나둘 생겼다. “성인 독서모임만 하나 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관장님은 아쉬워했지만 선뜻 회원을 모집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군인인 남편이 근무지를 옮기면 따라 이주해야 하고, 한창 육아 중인 주민이 많아 회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집 안내문을 붙였다. 신청자가 단 3명으로, 아슬아슬한 인원이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도 없다는 오기와 회원이 꼭 많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믿음으로 독서동아리를 시작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회원이 7명으로 늘었다. 모두 30~40대 주부들이다. 정아님, 은희님, 하나님, 은혜님, 광례님, 경립님, 예임님, 혜선님. 변수는 있지만 4~5명은 꼭 참석한다. 관장님의 주선으로 류정환 시인이 멘토로서 함께한다. 선정한 책을 읽은 느낌, 이야기에서 연상되는 개인적인 경험, 전에 읽은 책과의 연관성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알찬 독서 토론이 되기도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한다. 그럴 때, 멘토 선생님이 나서서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갈무리를 해준다.

모임 시간에는 시 한 편을 읽는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다채로운 삶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아 재미를 들었다. 유하 시인이 <구름의 운명>에서 “푸른 보리밭을 뒤흔들며 바람이 지나갔다/ 바람처럼 만져지지 않는 사랑이 나를 흔들고 지나갔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로맹 가리(에밀 아자르)가 『자기 앞의 생』에서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동아리 활동을 하며 가장 소중한 것들은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가고 있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이 활동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잘 구워진 꼬치구이를 한 점씩 빼먹듯 시·소설·역사·철학을 고루 돌아가며 책을 읽고 회원들과 책을 통해 ‘수다 떠는’ 시간을 기다리는 일 자체만으로도 큰 행복이니까.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도 없다.



## 누가 떠나실 때 독후감 보내라 하였나요

### 안양시 '석수시니어독서클럽'

회장·박인희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다. 자식들을 앞에 두고 “너희에게 상속할 재산은 없다. 하지만 늙어서 병으로 인해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하려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며 비슷한 연배의 친구를 사귀는 일이 최적일 것으로 생각했다.

2016년 1월 안양으로 이사를 했다. 석수도서관을 찾아가 독서동아리 모임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독서진흥팀 유옥환 팀장의 적극적인 추진으

로 동아리가 구성되었다. ‘석수’에서 ‘석’의 셋이라는 뜻과 ‘수’자를 따와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모임을 하기로 하고 ‘석수시니어독서클럽’을 만들었다.

그해 9월에 첫 모임을 했다. 봄, 가을 숲 치유 프로그램이나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도서관 담당자들이 고맙기 그지없다. 400쪽 상당의 연간 자료집 <책 읽는 어르신>을 큰 글씨 책으로 만들어주니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할 수 있어 아주 뿌듯하다. 독서모임을 통해 노년에 새 친구를 만들어 지낸다는 것은 삶에 새로운 수혈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임 4년째를 맞은 지난 6월 19일, 우리는 모임을 색다르게 진행했다. 2주 전, 황아무개 회원님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그분이 앉았던 책상에는 추모 꽃다발이 놓였다. 시작하기 전 모두 일어나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다. 산자와 죽은자의 합동 발표회였다. 고인은 평소 인터넷 활용을 어려워해 독후감 제출을 힘들어했지만 모임만은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자신이 이야기할 차례가 되면 오래된 시를 암송해 들려준다든지 가곡을 불러준다든지 하여 잔잔한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그런데 지난 4월 중병을 진단받고 투병 중에도 ‘친구야 놀자’란 주제의 독후감을 준비해 유고로 남겨놓고 간 것이다. 석수시니어독서클럽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회원 한 분이 추모곡을 부르고, 먼저 떠난 회원을 애통히 여겨 쓴 자작시를 낭송했다.

“누가 떠나실 때 독후감 보내라 하였나요?/ 우리 독서모임 친구들과 더노시고 싶으셨는지/ 김옥교 수필집에서 ‘친구야! 놀자’의 독후감을/ 병실에서 정리한 유고가 전해져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석수시니어독서클럽에서/ 늘 멋스럽게 감동을 주시었던 일/ 잊지 못하고 추모의 정 보내오니/ 님의 영혼 바람 되어 세상 구경 훌훌 떠나소서!”(《사랑하는 회원 동지를 앞세우며》 중)

고인은 삶을 연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거부하며 에밀리 브론테처럼 조용히 다음 세계를 맞이했다 한다. 평균 나이 76세, 노년의 황혼길에 외롭지 않게 손잡아주는 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 행복하다.

### 03

생각만은 지하철 궤도를

홀쩍 벗어나도 좋으리

**서울교통공사 독서동아리 '다독회'**

대표 · 이숙경



서울교통공사 5호선 기관사 9명과 지하철 보안관 1명이 모여 '다독회' 시즌 2 모임을 한다. 기관사 경력 25년 고참부터 입사한 지 몇 년 안 된 신입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기관사들은 각자 운행 스케줄이 다르다. 쉬는 시간, 식사 시간, 휴일도 달라서 독서모임 날짜 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정하는데, 회원 10명이 다 모이는 날이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다들 기뻐한다. 같이 책 읽고 소감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시즌 2가 있으면 시즌 1도 있는 법. 우리 독서동아리는 단순했지만 무거운 고민에서 출발했다. 한정된 공간에 몸도 생각도 갇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저마다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각에 지하철을 운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이 고장 나면 승객을 전부 승강장에 하차시키고 임시조치 할 때도 있다. 회송할 때도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열차를 세우고 달려가기도 한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5호선 궤도 위를 맴돌고 있다. 도돌이표를 찍으며 살아가던 우리 사이에서 어느 순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그 신호에 귀 기울였다. 그래서 의견이 맞는 동료들끼리 모여 지난 2014년 독서동아리를 결성했다.

모임에선 주로 고전 인문학을 위주로 책을 선정한다. 누구나 학창시절에 한 번씩은 펼쳐본, 세월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진 책들로 정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같은 책들이다. 책을 본 뒤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같은 책을 읽고도 느낀 점들은 모두 달랐고 이야기도 점점 다양해졌다. 2년간 모임을 이어오다가 각자 사정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다독회는 해체되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묻혀들어갔다.

그러던 지난 4월 어느 날, 독서동아리 회원이었던 정훈 씨가 제안을 했다. “‘다독회’ 모임을 그만두고, 2년 동안 제대로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김태식 씨는 “‘다독회’ 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고 있다”고 거들었다. 정석태 씨도 의견을 보탰다. “‘다독회’ 때 읽은 책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해서 우리는 다시 함께 읽기를 시작했다. 4월에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5월에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6월에는 조선희 작가의 『세 여자』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고민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차츰 넓

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만의 아집과 생각에 갇혀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다독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

## 책표지를 수놓은 색깔만큼 다채로운 이웃

### 안산시 다문화 독서동아리

#### '다다다새싹'

대표 · 박영숙



“맞아요, 어떤 모습이어도 민들레는 민들레예요.”

중국에서 온 진명화 씨가 말한다. 이 말에 캄보디아에서 온 렉가나 씨는 이렇게 말한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빅토리아 씨도 말한다. “민들레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 모습대로 어우러져 살아요.” 독서동아리 ‘다다다새싹’이 『민들레는 민들레』를 함께 읽고 나눈 이야기다.

‘다다다새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로 만나는 다문화 독서동아리다. 안산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튼튼한 ‘새싹’으로 크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다. 우리 동아리는 캄보디아(속파오시다), 우즈베키스탄(울리아), 베트남(안소희), 인도네시아(수산티), 러시아(올가), 몽골(나랑토야), 필리핀(마주라), 중국(진명화), 일본(쿠미코), 한국(정은주) 등 10개 나라에서 온 20여 명의 결혼 이주민과 한국 엄마들의 모임이다. 동아리를 시작한 지 벌써 6년째가 되었다.

우리 동아리는 그림책 표지를 아름다운 색실로 수를 놓는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으로 모인 10개 나라에 모두 색실로 수를 놓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공통적으로 어릴 때 할머니가 수놓던 모습, 엄마를 따라 바늘을 쥐어보던 추억이 있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았다. 온 나라의 그림책 표지를 색실로 수놓아서 도서관에서 전시를 하자.

우리는 책표지를 수놓으며 어릴 때의 추억을 꺼내고 그동안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자수를 하면서 서로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림책보다 더 다채로운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더욱 좋았다. 책이 귀하던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던 옛이야기로 상상의 나래를 펴던 어린 소녀들이 어떻게 하여 한국에 왔으며, 또 이렇게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때로는 웃음이 터졌고, 때로는 눈물이 났다.

책표지 자수 활동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손끝에서 탄생한 그림책 책표지는 안산 지역의 도서관을 거쳐, 성남, 대구, 용인, 인천 등지에서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과 만났다. 자신이 만든 책표지 자수와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회원들의 표정은 빛이 났다.

우리는 책을 통해 이웃과 만났다. 떠나온 나라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책표지를 색실로 수를 놓으면서 마음과 마음을 모았다. 이웃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이 혼자 읽는 것보

다 훨씬 좋다. 혼자 읽어서는 기억할 수 없던 것도 새롭게 기억하게 되고,  
혼자서는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이웃과 함께 책  
을 읽으며 우리는 서로 삶의 힘겨움을 견디는 힘이 된다.

독서동아리  
권역별  
워크숍



# 2019년 독서동아리 권역별 워크숍



## 충청

일시  
8월 31일(토)  
장소  
초롱이네도서관



## 서울1차

일시  
9월 21일(토)  
장소  
디어라이프카페



## 강원

일시  
9월 21일(토)  
장소  
강릉 고래책방



## 대구·경북

일시  
9월 28일(토)  
장소  
대구콘텐츠코리아랩



## 부산·울산·경남

일시  
9월 28일(토)

장소  
인제대학교



## 서울 2차

일시  
10월 12일(토)

장소  
관악구청 별관



## 인천·경기 1차

일시  
9월 29일(일)

장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서울 3차·경기 2차

일시  
10월 12일(토)

장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경기3차

일시  
10월 19일(토)

장소  
고양 아람누리도서관



### 경기4차

일시  
10월 26일(토)

장소  
용인 기흥도서관



### 전북

일시  
10월 19일(토)

장소  
전주 살림책방



### 서울4차

일시  
11월 2일(토)

장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2019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





# 2019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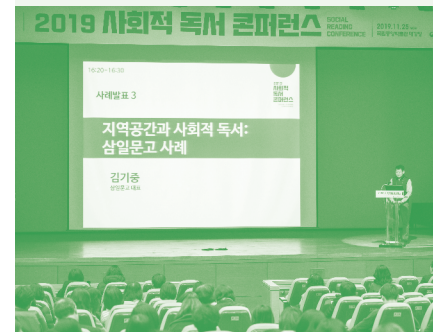
**주제** 시민 민주주의와 사회적 독서

**내용** ① 주제 발표

- 왜 사회적 독서인가? (안찬수 책임이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 한국의 독서동아리는 어떻게 읽나?
- 『2018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설계 연구보고서』 발표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
- 모두를 위한 독서동아리(Reading Groups for Everyone) 활동 사례  
(프레이저 허친슨 영국 리딩에이전시, Reading Agency출판협력담당수석)

② 사례 발표

- 지자체와 사회적 독서(이영숙 서울시 관악구청 독서문화진흥팀장)
- 도서관과 사회적 독서(신남희 구산동도서관마을 관장)
- 지역공간과 사회적 독서(김기중 삼일문고 대표)
- 평생교육과 사회적 독서(홍숙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 청소년과 사회적 독서(한명숙 춘천 봄내중학교 교사)





## 왜 사회적 독서인가?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 1. 2019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반갑습니다. ‘2019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의 주제 발표를 맡은 안찬수입니다.

이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독서’를 주제로 열리는 첫 번째 콘퍼런스일 것입니다. 오늘 콘퍼런스의 의의는 “정서적 또는 지식습득을 위주로 하는 개인적 독서 위주의 패러다임을,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고 나누며 사회 공헌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여 독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제가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 부족하나마 ‘사회적 독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거리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 2. ‘사회’라는 말과 사회적 독서

우선 ‘사회적 독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적’이라고 번역하여 쓰고 있는 ‘Social’이란 말은 라틴어 ‘Socius’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공유하는(Sharing), 참

여하는(Joining in), 참가하는(Partaking), 연합하는(Associated) 식으로 형용사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료(Companion, comrade), 동맹(Ally, Confederate)처럼 명사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번역어 성립과 관련된 책을 보면(예를 들어, 야나부 아키라柳父 章, 『번역어 성립 사정』), ‘사회(社會)’라는 말은 영어의 ‘Society’에 대응하는 번역어로 성립된 말입니다. ‘사회’라는 말은 원래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없었다는 것은 ‘Society’에 대응하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인들이 ‘Society’를 나타내는 유럽어와 첫 번째 만난 것은 에도 시대에 네덜란드의 ‘Genootschap’(이것이 영어의 ‘Society’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였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 단어를 처음에는 사귄, 모임(‘交ワル 集マル’ 또는 ‘寄合又集会’)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 말기가 되었을 때, 일본인들은 프랑스어 ‘Société’와 영어 ‘Society’의 번역어로 동료, 짝, 무리(‘仲間’, ‘懇’, ‘交り’)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번역어는 ‘좁은 범위의 인간관계’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ociety’에는 ‘넓은 범위의 인간관계’라는 의미를 있었기에 ‘동료’라는 번역어로는 ‘Society’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1868년에 펴낸 책 『서양사정 외편(西洋事情 外編)』에서 ‘Society’를 ‘인간교제(人間交際)’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메이지 유신 시기에 ‘회사(會社)’라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등이 모여 번역어에 대해 고민했던 ‘명육사(明六社, 페이로쿠사)’처럼 ‘○○사’라는 단체 등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명육사’에서 발행하던 『명육잡지』

『明六雜誌』에서 ‘○○사’의 사(社)와 모임의 회(會)를 가지고 ‘사회’(社會)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서 이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학문의 권유(學問のすすめ)』(1872)에서 일본인들이 세상을 뜻하고자 사용하고 있던 단어 ‘세간(世間)’에 대비되는 새로운 말로 ‘사회(社會)’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말해서 ‘사회’는 좋은 의미이고 ‘세간’은 나쁜 의미다(まず端的に言って‘社会’はいい意味‘世間’は悪い意味である).”

‘사회’라는 매우 추상적인 단어가 성립하게 된 연유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는 ‘Individual’의 번역어로 성립된 ‘개인(個人)’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개인, 또는 개인과 사회의 번역어 성립 과정을 살펴본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야나부 아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서 한자가 지니는 이러한 효과를 나는 ‘카세트 효과’라고 부른다. 카세트(Cassette)란 작은 보석함을 이르는 말로, 내용물이 뭔지는 몰라도 사람을 매혹시키고 애태우게 하는 물건이다. ‘사회’와 ‘개인’은 예전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 ‘카세트 효과’를 갖는 말이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어의 성립 사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서적 또는 지식습득을 위주로 하는 개인적 독서 위주의 패러다임을,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고 나누며 사회 공헌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여 독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한다는 것이 꽤나 까다로운 과제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쓸 때, 이 일본인들이 만든 이 한자어 뒤에 남겨져 있는 ‘Society’가

여전히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3. 독서의 사회성과 사회적 독서

‘사회적 독서’를 개념적으로 ‘개인적 독서’와 대비되는 것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 개념이 손에 잡히듯이 이해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본래의 의미가 마치 한자 조어 뒤에 숨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 독서’에 대해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독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행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과 거실과 카페와 공원과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행위는 그 자체로 소중한 행위입니다. 물론 독자 홀로 읽어도 그것이 글쓴이와의 만남이라는 면에서, ‘개인적 독서’도 사회적 행위입니다. 독서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사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사회적 독서’는 이러한 ‘독서의 사회성’과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독서는 그것 자체로 사회적인 것이지만, ‘사회적 독서’라고 말할 때 그 사회성은 무언가 다른 것을 내용으로 품고 있어야 하리라는 생각).

‘개인적 독서’를 위해서는 ‘책’과 ‘독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독서’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독자가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독자가 있어야 합니다. ‘책 읽어주기’를 생각해봅시다. ‘책’과 ‘책 읽어주기를 하는 독자’, 그리고 그것을 함께 듣고 있는 독자가 있습니다. ‘책 읽어주기’는 도서관과 학교와 서점에서 널리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 독서’인 셈입니다.

사회적 독서의 일반적인 형태는 ‘독서동아리’를 통해 ‘함께 책을 읽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읽는 이유는 독자가 다른 독자와 만나 읽은 것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 4. 사회적 독서의 특징

‘사회적 독서’의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봅시다.

첫째로 사회적 독서는 독자의 경험을 확장합니다. 독자와 독자가 서로 연결되어, 생각과 생각,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독서를 통해 개인적 독서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읽은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이들은 책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한 번 더 읽게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사회적 독서는 공감과 공유의 독서입니다. 사회적 독서를 통해 우리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책을 읽기 전후에 이루어지는 공감을 공유하며, 확장된 경험을 공유하고, 더 폭 넓어진 사유를 공유하게 됩니다.

셋째로 사회적 독서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독서입니다. 카톡이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이른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서 책을 함께 추천하기도 하며, 책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콘서트, 독서 토론 모임 등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형태의 사회적 독서(오프라인)와 함께 각종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형태의 사회적 독서(온라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사회적 독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독서이며,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의 문화정책과 연계된 독서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마을과 사회, 그리고 도시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와 규모의 사회적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City One Book)는 우리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전개되어온 사회적 독서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학기 한 책 읽기’도 사회적 독서의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약 40여 개에 이르는 ‘책 읽는 도시’들도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11월 현재 26개). 독서의 달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대한민국독서대전 등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섯째로 사회적 독서는 사회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된 독서입니다.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제작을 위한 낭독봉사의 경우를 보면, 그것은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일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한 독서 활동입니다. 낭독자는 책의 모든 내용(이를테면, 따옴표와 쉼표조차)을 목소리로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듯 사회적 독서는 사회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 5.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사회적 독서’

2019년 우리나라의 독서와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국가 계획이 두 가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나는 1월에 발표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그리고 다른 하나는 4월에 발표된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입니다.

오늘 콘퍼런스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두 가지 계획 모두 ‘사회적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를 주요한 과제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발달에 따른 반쪽자리 소통, 고립된 행동으로 인한 갈등 증폭, 공통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성숙한 사회로 이행 필요”를 필요성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독서-현장 연계형 프로그램 확

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이하 ‘3차 독서기본계획’)의 중점 전략은 ①‘사회적 독서 활성화’, ②‘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③‘포용적 독서 복지 실현’, ④‘미래 독서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방점은 ‘사회적 독서’의 확산에 찍혀 있습니다. ‘혼자 읽기’에서 ‘함께 읽기’로 독서문화의 대대적 전환을 천명한 것”입니다(강성민, ‘사회적 독서’ 반갑지만 ‘현장 목소리’ 약해, 서울신문 2019년 5월 13일자).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독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3차 계획은 독서의 가치와 사회적 독서, 독서공동체 과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	이제부터는 :
① 개인적 읽는 행위 중심과 소유	① 함께하는 사회적 독서와 공유
② 선별적 독서 기회	② 보편적인 포용적 독서복지
③ 가끔 읽는 간헐적 독서	③ 일상화된 생활 속 독서
④ 전통적인 양적, 종이책 독서 중심	④ 질적, 디지털 융복합 독서
⑤ 법적 기반 미흡한 분산된 체계	⑤ 제도화·지속가능한 협력체계

‘3차 독서기본계획’은 정책기조로 5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회적 독서, ② 포용적 독서복지, ③ 생활 속 맞춤독서, ④ 미래독서생태계, ⑤ 독서정책 협력 체계.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회적 독서 활성화’이며, 그 첫 번째 중점과제가 ‘함께 하는 독서 공동체 확산 지원’입니다.

## 6. 왜 사회적 독서인가

그럼 왜 도서관발전계획이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모두 ‘사회적 독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콘퍼런스에서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독서 행위의 변화’입니다. ‘3차 독서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찌 보면 독서행위가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개인적 것에서 사회적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개인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개인적인 독서를 진작하는 캠페인을 전

개하는 차원으로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판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정책이 펼쳐졌지만, 기본적인 독서율조차 계속 하락한다는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성인 연평균 독서율 2015년 65.4%→2017년 59.9%, 연평균 독서량 2015년 9.1권→2017년 8.3권, 월평균 서적구입비 2015년 16,623원→2017년 12,157원, 공공도서관 이용률 2015년 29.2%→2017년 22.2% 등).

셋째로 독서문화를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에 비해 우리의 행복수준이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급격한 개인화로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새로운 독서의 가치에 초점을 둔 ‘사회적 독서’인 것입니다.

## 7.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 독서

독서의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서의 가치는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것입니다.

독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문화를 바탕으로 성숙한 사회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 독서’는 새로운 독서 행위이자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새로운 독서문화 정책이며,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입니다.

## 02

#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 함께한

## 사회적 독서

신남희(구산동도서관마을 관장)

에드 디 앤절로라는 미국 학자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시민들의 계몽이 공공도서관의 목표라면, 얼마나 많은 자료가 대출되었는가 하는 것만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봉사한 독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좋은 시민이 되었는가를 가지고 성공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은 시대에 따라 부단히 재정의되어야 하며, 전국 곳곳에 촘촘한 인프라를 갖춘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독서를 촉발하고 확산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도서관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주민들의 자각과 참여로 만들어진 도서관이고, 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과 건축 과정 전반에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건립된 주민주도형 도서관입니다. 시민들이 참여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과정 전반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도서관 건축은



무명의 수많은 건축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도서관 이용자 모두가 즐겁게 이용하는 ‘우리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는 도서 구입부터 문화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 기획까지 주민 참여와 공공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볍고 시간 때우기식 흥미 위주의 독서보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성찰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독서를 촉발하고 확대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 개설하는 사회교육 강좌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
2. 전통 철학과 사상
3. 사고의 방법을 일깨우는 철학
4. 더불어 사는 사회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공존의 사상
5. 사회적 관심사

이러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2017년에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 페미니즘, 기본소득, 청년주거, 평화, 통일, 인권 등의 소주제를 정하여 매월 강사를 초청하고, 직원들이 책을 읽으며, 직원 전체회의에서 읽은 책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도서관 블로그에 게재하며, 각 자료실별로 이용 대상에 맞는 도서를 골라 전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지역 전문가 단체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 <오마이뉴스> 오연호 기자를 초청하여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강좌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주제로 정한 후에는 은평구의 분야별 마을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협동조합과 생태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였으며, 자료실별로 북큐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직원들부터 마을 활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에만 이용자들에게 책을 권하고 안내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울에는 철학하는 시민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한나 아렌트, 바뤼흐 스피노자, 미셸 푸코,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 철학자들의 강의를 21강이나 진행했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고, 숨겨진 사회문제를 드러내는 영화 상영과 감독과 관객이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마을소극장과 독립영화 상영 프로그램으로 <자백>의 최승호 PD, <공동정범>의 김일란, 이혁상, 변영주 감독, <B급 며느리>의 여주인공 김진영, <내일> 영화 상영과 사회학자 노명우와의 대화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진화심리학’ 전중환 강연을 시작으로, ‘마음의 습관’ 김찬호, 정희진의 ‘차이에 대한 공부’ 등 사회심리학 강연과 청년들을 위한 야간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동학에서 해방까지’를 주제로, 우리 근현대사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알아보고 답사를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미리보는 통일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통일에 대한 강의와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언어, 예술, 생활문화, 건축,

북중 국경, 독일 통일 사례, 평화에 대한 모색 등 상당히 딱딱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매 강좌마다 예상한 인원을 훌쩍 넘기면서 뜨거운 호응 속에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좌가 기획되면 강사의 저작이나 관련 주제의 도서를 전시하여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거나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 연계 시민대학이나 길 위의 인문학의 경우 관련 도서를 여러 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복본도서를 구입하고 전시하며, 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의 자체를 토론식으로 기획하기도 하는데, 2017년 이민정 강사의 경우 인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페미니즘 동아리와 함께 준비하였고, 주거를 주제로 한 강좌의 경우 지역의 협동조합인 두꺼비하우징과 토론식으로 강좌를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2019년 손희정, 최태섭 강의는 두 강사가 대담식으로 진행하고, 참여자들은 질문과 토론 형태로 함께하는 형식으로 기획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여러 회 차 강좌인 경우 마지막 강의를 토론식으로 준비하여 강사와 참가자가 함께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사회학자 김찬호 강사, 역사학자 김영수 강사, 길위의 인문학 전영선 강사 등). 수시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강사도 있습니다(정희진 강사 등).

사회적 주제 선정 후에는 전 직원 책읽기와 토론, 도서관 블로그 게시, 자료실별 전시, 카드뉴스 제작, 강연 및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합니다.

주제 선정 시 기본소득, 페미니즘, 우리가 잘 모르는 아시아, 평화와 통일 등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주제

를 선정하여 사고와 토론을 유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참가자 자유토론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성격상 한계가 있으나, 강의 마치고 30분 전, 혹은 5회 강좌의 경우 마지막 강의 날 두 시간을 질문 및 토론에 할애하기도 하며, 질문과 대답, 다른 참가자의 반응 등 전면 자유토론은 아니지만,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특정한 주제로 강좌나 토론을 열 경우 관련 도서의 대출율이 높아지고, 주제 관련 참고 서비스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관 기념행사로 매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 ‘마을과 도서관 다가올 미래’, 2017년 ‘은평구 도서관 십년지대계’, 2018년 ‘독서시민 은평’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번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제 발표와 토론 이후 참가자들이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참가자들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이 지역에 반향을 일으켜 또다른 토론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에 있는 동아리들 역시 사회적 독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 무렵부터 시작된 파동 독서동아리의 경우 주제와 도서를 공지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 독서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낭독동아리, 함께 시읽고 이야기 나누는 함시모, 추리소설 동아리, 여행책 읽는 모임 등 다양한 독서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사회적 독서의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소통 공감 나눔의 독서교육 길 찾기

한명숙(강원도 봄내중 수석교사)

### 1. 책 읽는 입학식, 전교생이 함께하는 독서동아리

지난 3월, 설렘으로 시작한 ‘책 읽는 입학식’으로 새 학기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열었다.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주관하여 축시 낭송, 독서수첩과 책 갈피, 책 한 권, 독서다짐글을 담은 에코백 선물을 새내기 각 반 대표 학생에게 전달하고<sup>1</sup> 신입생, 교사, 학부모 대표가 차례대로 독서다짐문 낭독을 했다. 이어서 지난 한 해 전교생이 동참하여 펼쳤던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영상으로 발표, 안내하고 선배들의 축하무대와 관현악 연주회로 즐거운 입학식을 했다.

새 학년을 준비하며 교과협의회를 통해 우선 교육과정 재구성부터 시작했다. 국어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교생이 매주 국어시간 한 시간을 오롯이 독서 활동 시간으로 운영했다.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의 중요성과 ‘함께 읽기’의 의미, 활동 방법, 4~5명의 동아리 구성 방안에 대한 공개수업과 수업 나눔을 열었다. 담임교사와 국어교사들의 추진력으로 3월 말까지 전교생 502명 대상, 19학급 전체에 130개(1학년 36개, 2학년 42개, 3학년 49개, 책톡!<sup>2</sup> 3개) 독서동아리가 조직되었다. 한 학

<sup>1</sup>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책 읽는 입학식’ 때 청소년 독서수첩과 에코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sup>2</sup> ‘책톡!900 독서클럽’ 35개팀이 춘천 원주 지역에서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 단위로 교체하여 지속될 동아리 구성원은 국어시간은 물론, 가능하면 다른 교과 시간에도 모둠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안내했다.

학교 도서관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다시 점검하여 4~5권의 복권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 도서를 별도 서가에 정리하였다. 특히 1학년은 ‘책 읽는 입학식’과 연계하여 선물로 받은 책을 3월 한 달간 자유롭게 읽은 후, 도서관에 자발적 기증을 권장하여 다시 동아리용 도서로 묶고, 부족한 책은 도서구입비를 활용하여 근간 청소년 권장도서로 구비하였다. 또한 지역 도서관과 연계하여 시립청소년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용 복권도서(5권씩) 40종을 한 달씩 장기 대출, 활용하였다.

3월 말, 각 동아리별로 간단한 독서 메모와 책 대화를 나누며 정리한 내용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자료파일철을 일괄 준비하여 표지를 개성 있게 꾸미도록 하였다. 도서관 창가 낮은 서가에는 각 학년 반 동아리별로 각양각색의 책동아리 이름을 내건 파일철이 나란히 꽂혀 있다. 아이들은 매주 1회 한 시간씩 정례 모임을 통해 함께 읽기와 책 대화 나누기를 실천하고 있다.

학기말, 전교생 독서동아리 활동 발표회는 학급별로 실시 후 선정된 대표 동아리 20개 팀이 두 시간여 동안 도서관을 열기로 가득하게 하였다. 지난 9월 초에는, 작가와의 만남에 앞서 학년별 대표 동아리가 독서동아리 활동 중간발표회를 했는데, 작가의 열광 못지않게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함께 읽기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봄내중 한 달 한 권 함께 읽기!	1주	동아리(4~5명)별 책 선정하기, 함께 읽기
	2주	동아리별 함께 읽기, 메모하며 질문 만들기
	3주	동아리별 책 대화 나누기, 책 놀이로 즐기기
	4주	함께 읽은 책 소개와 소감 발표회, 상호 감상 나눔 활동

## 2. 함께 읽기, 주제통합수업과 독서문화 체험활동

학교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매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4~5명씩 조직된 긴밀한 독서동아리 활동은 도서관 자료 탐구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졌다. 교과 교사들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탐구학습 과제를 부여해주며, 재량 활동이나 국어과 수업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도서관 활용 독서수업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올해 자유학년제를 맞은 1학년 학생들과 주제통합 프로젝트 독서수업 활동으로, 1학기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제로, 2학기는 생태 환경을 주제로 인제군 자작나무숲을 탐방하며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였다.

2018~2019 독서문화 체험활동 주요 내용	
3월	책 읽는 입학식, 독서동아리(전교생, 교사, 학부모) 발대식
4월	세계 책의 날 기념주간 행사, 세월호 참사 추모 도서관수업, 교과융합 주제탐구 독서 체험활동(봄의 자작나무숲)
5월	소중한 사람에게 책엽서 쓰기, 사제동행 독서기행(평창),교육공동체 독서 체험활동(길 위의 낭독회 : 대관령 옛길~경포대 낭독회)
6월	저자와의 만남-초청 강연: 최재천, 이일훈, 박경희, 김혜정, 김장성 그림책 작가, 이항규, 김성호 생명과학자, 아가(어린이시인) 작가 외. 민주주의 인권 독서수업
7월	신나는 예술여행 <sup>3</sup> , 1학기 독서동아리 활동 발표회
8월	강원 학생 인문학여행 - 친구와 함께 떠나는 두근두근 교실 밖 인문답사 <sup>4</sup>
9월	시낭송북콘서트: 한영수 시인, 손택수 시인. 책 세상을 열다-낭독이 있는 오후
10월	드로잉, 시노래콘서트(박석신 화가, 신재창 가수), 와글와글 독서토론탐마당(한 도시 한 책 읽기), 자작나무숲 평화생명 북콘서트
11월	교육공동체 북콘서트(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2017) 예술문화기행(윤동주 문학관~성북동, 영주~원주 일대)
12월	인문역사기행(파주출판도시, 식민지역사박물관~근현대사기념관~419묘역)
1월	전교생 독서동아리 활동 발표 한마당

<sup>3</sup> 2017 음악으로 떠나는 책 속 세계여행, 2018 책 읽GO, 퀴즈 풀GO!, 2019 문학 성큼성큼! 등을 운영함.

<sup>4</sup> 한림대학교 지역인문센터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여 2018년 3회 답사, 2019년 4회 지역 답사함.

## 3. 지역 연합 함께 읽기

책 읽기는 교육의 시작이고 끝이 될 수 있는 양면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책 읽는 교사의 실천적인 모습은 교사 스스로의 자양분이 되어 교사의 자존감을 우뚝 설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교사의 영향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져 학생들의 책 읽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1~2019년 현재, 춘천 지역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독서모임으로 ‘책 읽기+저자강연+토론+현장답사’의 실천적인 ‘교사독서아카데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각 학교별, 지역별 교사 책모임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 독서아카데미’ 활동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12년 춘천권역 20개 중·고등학교에서 50여 개 청소년 독서동아리가 만들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독서아카데미는 연 4회 매 강좌마다 400여 명 학생들이 참가, 연인원 1,500여 명의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모이는 활동이다. 2019년 현재까지 확산을 거듭했으며 학교별 책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어 독서동아리 지역 연합 행사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분기별 청소년 독서아카데미 강좌와 연합 독서기행, 연합 독서캠프 등 다함께 펼치는 독서 체험활동을 병행하며 독서 흥미와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행사의 진행 과정을 학교별, 동아리별로 상호 소통하며 청소년이 스스로 준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로의 모습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지도교사는 참가 학생들의 오타리 역할을 하며, 최소한의 조언을 해주거나 소박한 간식을 챙겨주고 지켜봐주는 역할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파듯한 격려가 되었다. 청소년 독서아카데미는 개별 독서동아리별로, 학교별로, 나아가 학교 연합 혹은 지역 연합 형태의 ‘따로 또 같이’의 책모임과 독서문화 체험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독서 활동의 활력이 되고 있다.

‘강원학생 인문학여행’은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을 순차적으로 답사하며 ‘친구+책+저자강연(질문 토론)+지역답사+이야기사랑방’ 형식으로

2018~2019년 현재, 강원도의 강릉, 철원, 인제, 홍천, 영월, 평창, 춘천 등 7개 지역을 답사했다. 춘천 봄내중학생 30명이 주체가 되어 해당 지역의 또래 친구들과 만나 함께 지역을 답사하고, 토속음식과 간식을 나누며, 저자와의 만남 후 모둠별로 이야기사랑방을 열며 그칠 줄 모르는 이야기꽃을 피워냈다. 10대 청소년들의 시선과 느낌으로 아이들이 살고 있고, 살아갈 우리 지역의 인문독서 지도를 순차적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데 큰 즐거움이 있다.

#### 4. 함께 읽기의 위대한 힘

더디지만 ‘함께 읽기’를 통해 책으로 맺어진 아이들이 책 밖으로 걸어 나와 더 큰 세상을 보고 다른 이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이웃의 아픔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갈 때 가슴에 밀려오는 따뜻함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느낄 때는 오로지 교사나 부모의 삶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뿐이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교육의 희망이며, 우리 아이들의 희망인 것이다. 아이들의 활발한 독서동아리 활동 못지않게 교사 독서동아리, 학부모 독서동아리도 월 1회 정례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지속적인 책 읽기는 교육공동체 북콘서트라는 아름다운 체험을 이끌어냈다(2016 학생의 날 기념 북콘서트, 2017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콘서트, 2018 시인, 화가, 시노래가수 북콘서트, 2019 자작나무숲 평화생명 북콘서트 등). 무엇보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른들과 함께하는 시공간 안에서 더불어 나누며 배우는 소중한 체험을 통해 서로가 격려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갔다.

공교육의 심장부로서 학교 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절감한다. 학교 도서관은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과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으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관심 분야를 키우며, ‘해야 할 것’이 아닌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야 한다. 책을 매개로 한 진정한

소통과 나눔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새로운 관계 맺음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책 읽기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진정한 상상의 힘을 키우고, 스스로 삶의 주제들을 탐구하고 소통하는 힘을 키워가는 그 길에 어른들의 함께 읽기가 희망을 열어가면 좋겠다.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함께 읽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삶과 삶을 이어주는 길이다. 학교 현장의 또래 친구들끼리, 동료 교사끼리, 사제동행으로, 때로는 교사와 학부모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다 보면 이 땅에도 곳곳에 ‘도서관이라는 낙원’<sup>5)</sup>이 펼쳐지리라 믿는다.

5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천국을 상상해보다가 ‘천국은 필시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 『픽션들』 보르헤스, 민음사, 2011.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 독서동아리를 말하다

독서동아리 인터뷰

---

발행일	2020년 1월
발행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40 2층 책읽는사회문화재단(동숭동, 일석기념관)
전 화	(대표전화) 02-3675-8783 (독서동아리지원센터) 02-3675-8784
팩 스	02-3675-8788
누리집	www.bookread.or.kr 책읽는사회문화재단 www.readinggroup.or.kr 독서동아리지원센터 www.bookstart.org 북스타트코리아 www.nabeeya.net 책 읽는 사회를 위한 북메거진 나비
전자우편	(대표) bookread3@daum.net (독서동아리지원센터) readinggroup@daum.net
디자인	디자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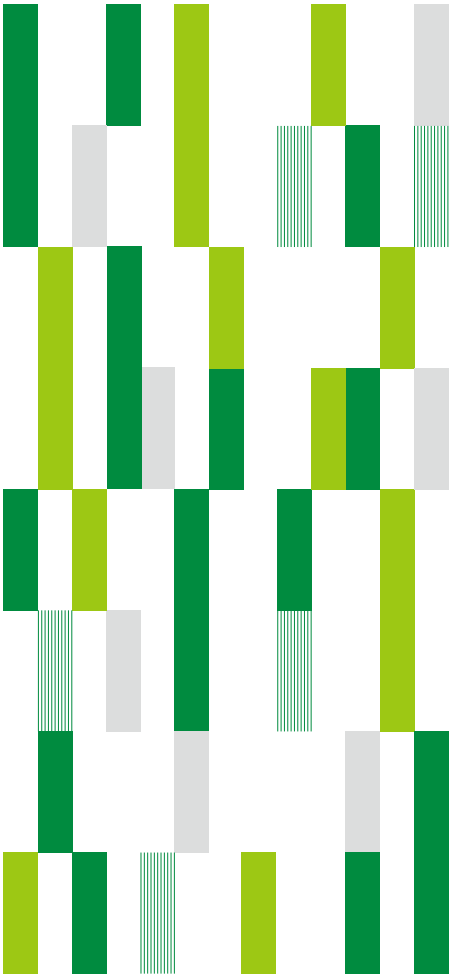
©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이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 독서동아리를 말하다

독서동아리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책이 낳은 사회문화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